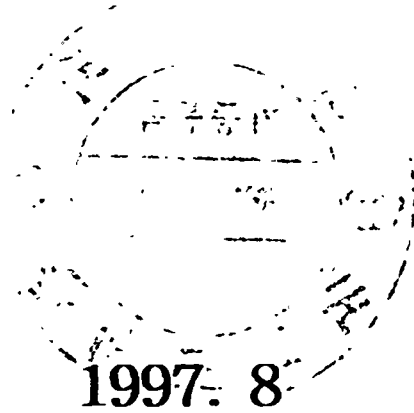


381.41
L 293人

산지유통시설 운영 우수사례



농 립 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머 리 말

정부가 '94년 9월에 수립한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에 따라 간이집하장 및 농산물포장센터 등 산지유통시설 설치지원 시책이 확대 됨으로써 집하활동을 체계화하고 산지에서 농산물을 선별, 포장하여 규격품을 출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집하장 설치지원으로 산지에서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던 기존의 노후화된 창고시설이 50평, 100평 또는 200평 단위로 규모화되고 편리한 시설로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생산자조직 중심의 공동생산, 공동출하 활동이 점차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유통시설의 운영주체가 작목반, 영농회, 영농조합법인 등 산지 생산자 중심의 조직으로서 경험부족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미숙하고 또한 농산물 생산의 계절성 등으로 인해 시설 운영의 효율이 비교적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통개혁대책을 추진한지 3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협조를 받아 산지유통시설의 운영 실태를 총점검하고 그에대한 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비교적 운영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몇몇 사업장의 운영사례를 자료집으로 엮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례집이 산지유통시설 운영사업자는 물론 산지유통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있기를 기대합니다.

1997. 8.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지원처장 장동수

목 차

I. 농산물 유통정책 방향	7
II.산지유통시설 운영 우수사례	23
1. 농산물포장센터	25
○ 재산 영농조합(강원 평창).....	26
○ 부여 밤 영농조합(충남 부여).....	31
○ 도고 농협(충남 아산)	37
○ 전주 원협(전북 전주)	43
○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영농조합(전남 해남)	48
○ 홍익 영농조합(경북 경산)	56
○ 용현 명품토마토 영농조합(경남 사천)	63
2.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69
○ 임동 농협(경북 안동).....	70
○ 청리 농협(경북 상주).....	76
3. 농산물 간이집하장	83
○ 포천 농협(경기 포천).....	84
○ 와야2리 고추작목반(강원 홍천)	88
○ 사명산 느타리작목반(강원 양구)	92
○ 탄금대 작목반(충북 충주).....	95

○ 하용두 작목반(충북 충주).....	98
○ 탄부 농협(충북 보은).....	102
○ 대성 오이작목반(충남 공주)	106
○ 예당 영농조합(충남 예산).....	109
○ 청웅시설원에 영농조합(전북 임실).....	112
○ 정일 과수 영농조합(전북 정읍).....	116
○ 보성 미니토마토 영농조합(전남 보성)	119
○ 곡성 농협(전남 곡성).....	123
○ 조성 시설원에 작목반(전남 보성)	126
○ 화리 과수작목반(경북 청도).....	129
○ 함창이안 사과영농조합(경북 상주).....	132
○ 거창 원예영농조합(경남 거창).....	135
○ 밀양 농협(경남 밀양).....	139
○ 서귀포 감귤영농조합(제주 서귀포).....	143
○ 대포1 감귤작목반(제주 서귀포).....	147
○ 용흥 신농감귤작목반(제주 북제주).....	151

Ⅲ. 부 록

1. 농산물 포장센터 현황	157
2.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현황	167
3. 간이집하장 현황(종합)	170

I . 농산물 유통정책 방향

여 백

I. 농산물 유통정책 방향

1. 농산물 유통의 특성과 문제점

가. 농산물유통에 대한 일반의 인식

- (1)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상존하고 있으며 유통단계, 유통마진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음.
 - “산지에서 100~200원하는 배추가 왜 소비지에서는 1,000~2,000원이 되는가 ”
 - “왜 중간상인의 폭리를 막지 못하는가”
 - “왜 유통단계와 유통마진을 줄이지 못하는가”
- (2) 농산물 가격파동이 있을 때마다 적정생산에 대한 정부만능, 정부 책임주의
 - “정부가 왜 적정량만 생산되도록 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남아돌고, 어떤 때는 모자라도록 하는가”
 - 농업관측이 잘못되어 과잉생산이 되었다라는 책임강조
 - 산지가격이 내린 만큼 소비자가격도 그 비율만큼 내려야한다는 생각
- (3) 유통상인과 출하농민을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설정하고 정부가 농산물유통에 적극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유통관련 정부지원은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에 한정해야

- 생산자들의 직판장에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싸게 팔아 상인의 폭리를 견제해야
- 중도매인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자기계산매매를 금지하고, 단순히 농산물 중개만 해주고 일정 수수료만 받도록 법제화 (『농안법 파동』)

(4) 단순히 직거래 등을 통해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

- 유통의 각 단계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각 단계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통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

나. 농산물 유통의 특성

(1) 농산물유통은 농산물이 가지는 자체 특성에 따라 유통단계가 많고 유통비용도 큼

- 농산물 유통은 공산품과 달리 여러 품목을 생산하는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다수의 소비자에게 매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집·분산과정이 필요해서 유통단계가 다단계

- 수집단계, 분산단계가 필수적
- 자주 구매함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중요도는 공산품에 비해 큼

- 농산물은 가격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우며, 유통과정의 감모나 변질 가능성이 커서 비용이 많이 듦

- 수확, 상·하차, 수송에 많은 비용이 소요, 넓은 매장 필요

- 공산품과 같이 동일규격·품질로의 생산이 곤란하여 대량 유통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동일규격으로의 선별과정이 필요
 - 농산물은 재배면적이 전년 또는 파종직전의 가격추세에 따라 크게 증감하고, 기상, 병충해 등 작황에 따라 생산이 크게 변동
 - 고랭지 배추의 경우 풍흉에 따라 50% 이상의 단수차가 가능
- (2) 우리나라의 경우 유통시설의 현대화가 미흡하고 생산자 단체의 결속력이 미흡해서 출하조절이 불안정한 문제
- 저온수송·저장 등의 장비·시설부족, 출하조절의 불안에 따른 큰 폭의 가격 진폭
- (3) 이러한 사유로 농산물의 유통마진, 즉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에서 생산자가 수취한 가격을 뺀 수치는 큼.
- ※ 유통마진의 구성 = 각 유통단계의 이윤(위험보상 포함)
+ 유통비용
- 유통비용의 구성 : 수송비, 보관비, 가공비, 저장비, 금융비용 및 임차료, 유통과정중 발생한 감모비 등

다.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

- (1) 산지에서 공동선별과 다량 규격상품 출하체제가 미흡
- 농가별 상품규격이 달라 수송·하역·경매시 따로 취급함에 따라 유통비용이 많이 들고 주문거래도 어려움

(2) 교통체증·인건비 상승에 따라 물류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가 미흡

- 유통시설과 장비가 물류표준화 개념없이 건설·제작
- 도매시장·공판장 등에서 하역기계화 등 물류표준화에 대한 여건 미비

(3) 소비지 유통시설의 미흡으로 유통경로·업체간 충분한 경쟁
체제 미확립

- 34개 공영도매시장 개설 계획중 '97. 7월 현재 15개소
개설 운영
 - 19개소 건설중
- 물류센타는 2004년까지 16개소를 건설토록 계획하고 있
으나 아직 개장된 시설은 없음
 - 10개소 건설중

(4) 도매시장의 지속적 운영개선 필요성

- 일부 도매법인의 형식적 기록상장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
되지 않아 출하자 및 중도매인의 경매에 대한 불신 상존
- 이미 도매시장 상장을 거친 물량이 중소도시 도매시장에 재반입

(5) 생산조정과 출하조정을 위한 정보제공 체계 미흡

- 품목별 지역별 농업관측체제가 미확립되어 농업관측의 활용도가
낮음
- 농업관측결과나 유통정보가 생산조정과 출하조절로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 의문

2.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 및 성과

- 농수산물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94. 9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주요 추진내용
 - 산지에서 선별포장, 공동출하가 이루어지도록 집하장, 포장센터 등 산지유통시설을 대폭 확충
 -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기 위해 소비지에 도매시장과 물류센터 설치를 확대
 - 도매시장내 거래질서확립과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품목 상장매매제 실시 등 운영개선 추진
 - 원산지표시제, 품질인증제 등 국내농산물의 차별화 추진

가. 산지에서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산지유통체계 점차 개선

- 산지에서의 선별포장 및 규격품 출하와 가공처리를 위한 산지유통·가공 시설 확충

	<u>총계획</u>	<u>'95년까지</u>	<u>'96</u>	<u>'97계획</u>
- 간이집하장	3,200개소	1,954	1,046	200
- 포장센터	160	21	28	28
- 청과물종합처리장	3	-	3(포장센터에 통합)	

- 산지에서 생산자조직단위의 공동생산·출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짐
 - 공동선별·공동규격출하 사례 : 강원 춘천 신북농협(토마토)
경남 남해 서면농협(마늘)
충남 부여 영농조합법인(밤)
전남 영암농협(마늘)
 - 군단위 브랜드 사례 : 전남 영암농협(영암), 강진농협(청자골)

나. 소비지 유통시설 투자의 대폭 확대로 원활한 도매거래와 유통경로 및 업체간 경쟁여건 마련

- 대량 신속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영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 물류센타 건설

	총계획(2004)	'94이전	'95-'96	건설중(예산억원)
- 도매시장	34개소('98)	10	4	20 (907)
- 공판장	67 ('98)	44	6	14 (68)
- 물류센타	16	-	-	10 (739)

다. 전품목 상장거래의 실시 등 도매시장 공정거래질서 점차개선

- '95년 무·배추 등 “경매가 어렵던” 품목의 상장경매 실시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기간설정(3년~10) 및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평가제도의 강화
- 산자수집상 등록제 실시로 수집상을 제도권으로 흡수('96년말 14,261명)
- 상장수수료 인하 (가락동시장 1-1.5%)로 농업인 부담 경감

라. 품질인증제의 확대, 원산지표시제의 강화,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등으로 국내 농산물의 품질차별화 유도

- 품질인증제 확대 : ('93) 69품목 (3만톤) → ('96) 76 (12만톤)
- 원산지표시제강화로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정착
 - 대상품목 확대 : ('93) 189개품목 → ('96)470
 - 최저 과태료 인상 (1만원→3만원), 명예감사원 위촉(1,161명), 고발 포상금제 시행
 - 이행율('96.5 농검) : 백화점 등 대형점 92%, 재래시장 69%
- 생산유통단계의 안전성조사제도 도입 (20개 품목)

마. 산지가공공장 지원으로 복합산업화

- 산지가공산업육성으로 부가가치를 산지에 환원하고, 일정품위 이하 농산물의 가공 처리, 홍수출하방지 및 물류비용의 감소에 기여
 - 2004까지 2,000개소 지원 ('96까지 1,231, '97. 134)
 - 특히, 부피와 무게가 큰 무·배추의 김치가공 확대
- 공장설치·운영, 판로개척에 필요한 상담·안내기능 강화
 - 전통가공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전시판매장, 판촉전 등 지원
 - 유통공사 전담기관 활용

바. 농업관측, 유통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집·분산체계의 정비

- 농림수산정보센터를 주축으로 농업관련 통합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 농업관측정보의 수시 제공체제에서 월보체제로 전환('96.9)

3. 유통시장 여건변화와 그 영향

- 소비지 대형매장의 급속한 확산으로 대량 규격품 공급체계의 변화를 요구
 - 이들 업체는 대량의 균질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요구하고 있어 현재 소조직 단위 생산·출하체제로는 한계
 - 국내공급이 어려울 경우 신선농산물도 수입으로 충당예상
 - 선진 유통기법을 가진 외국 유통업체의 진출과 함께 국내 대기업도 대형 유통업체 진출 가속화
- 인건비 상승,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의 악화로 물류비용절감이 농산물유통의 핵심과제로 대두
 - 농산물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의 필요성 증대

- 유통경로 다원화에 따라 도매시장의 기능보완 필요성 증대
 -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의 확충과 대형업체와의 직거래 확산으로 장기적으로 기존시장 출하물량 감소 예상
 - 영세 중도매인, 도매법인의 영업수지 악화와 경쟁력 약화
- 유통농산물의 품질 유지, 안전성 제고에 대한 소비자 욕구증대
 -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 필요성 증대
- 생산이 탄력화 되어가고 있으며 유통정보와 생산출하조정의 중요성 증대
 - 특히 채소류의 경우 시설이 현대화되고 재배면적도 탄력적으로 변하고 있음.
- 유통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
 - 과거는 제조업 중심적 사고 : 생산이 곧 수요에 연결.
 - 대형유통업체의 시장교섭력 강화에 따라 유통업체의 요구에 맞는 상품공급체제 필요
 - 공급이 늘고, 탄력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급안정, 정보중요
 - 판매업자 상표, 얼굴있는 농산물 상품시대

4. 농산물 유통정책의 발전방향

- 시설투자 중심에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거래와 물류의 효율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자 함 -

가. 협동생산, 공동출하체계를 확립하여 산지에서 규격상품으로 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상표단위 유통의 실현

- 산지생산자조직 중심으로 규격상품 대량 촉진
 - 지역별, 품목별로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공동선별·규격출하를 촉진하고 상표단위 유통 실현
- 포장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을 산지규격품 생산과 출하거점으로 육성하고 군단위이상 광역 『브랜드』 유통을 구축
- 생산자조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각종 정책사업을 우수생산자조직에 우선지원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우수조직 우선지원 원칙 반영 (현재 14개사업 반영)
 - 협동정도와 규모에 따라 평가(농검), 관리
- 유통전문회사법인의 포장센터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유통회사도 지원 육성

나.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물류표준화를 적극 추진

-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포장화·규격화된 상태로 기계에 의한 하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관처리체계 구축
 - 배추등 비포장품의 계획적인 규격포장화 추진

- '97년 가락구리·안양시장에 출하되는 배추·수박에 대해 포장재를 지원하고 포장출하를 촉진하여 쓰레기 발생억제, 거래효율화 도모
- 파렛트에 의한 일관처리체계, 하역기계화 추진
- 생산자조직과 도매시장에 파렛트, 하역장비 (지게차, 전동차, 컨베이어 등)를 지원하여 하역기계화
- '97년에 가락·구리·안양시장에 하역기계화 시범추진
- 신규시설·장비에 물류표준화 개념을 도입하고, 기존 시설도 보완
- 농산물포장규격을 단위화물적재시스템(Unit Load System)에 맞도록 현행 표준출하규격 정비
 - '96년에는 무·배추 등 거래량이 많은 20개품목 정비
 - 금년부터 나머지 품목의 포장규격을 ULS체계에 맞게 정비
- 정보표준화 및 지원제도 정비
 - 농산물 유통관련 표준상품코드를 제정하고, 물류정보망을 구축, EDI 거래체계 구축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물류표준화의 정의 및 지원근거 마련

다. 도매시장 제도개선의 정착으로 거래 투명성 확보

- 상장거래의 조기정착으로 거래질서 확립
 - 형식적인 기록상장의 단속을 강화하되, 상장거래가 어려운 품목은 예외제도 적극활용
- 경매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경매현장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경매결과 공개체제 추진
 - 경매사 교육강화, 경매전산화 시범추진 등

- 도매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각종 부조리의 근절
 - '97년중 부당임대, 전대행위 근절, 자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이후 단속강화
 - 질서문란행위를 구체화하고 점수화하여 업무정지, 허가 취소 등 조치
- 적정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수를 제시하고, 규모화 촉진
- 출하예약제 도입 등을 통해 도매시장 출하물량 조절

라.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공급

- 개방의 시대, 경쟁의 시대 도래 : 농수산물식품 공급선의 "세계화"
-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 생산·가공·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 및 품질저해 요소 차단
 - 생산 출하 단계의 농산물조사, 대농민 지도
- 안전농산물 생산·공급 세부방안 강구
 - 토양오염도 정기점검, 작물 오염여부 점검·관리 (농진청, 농진공사)
 - 생산, 수확, 가공 유통단계별로 안전성 조사 (농약잔류, 중금속 등)
 - 농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안전성 조사체계 확립
 - 유통·가공시설의 위생개선 및 cold chain 구축
 - 민간인 주도의 『추진협의회』를 구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

마. 식부의향, 재배면적, 가격동향 등 유통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생산 및 유통에서의 활용도 제고

- 산지의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시장을 연결하여 상호 필요한 정보가 교류되도록 쌍방향 정보교류체계 구축
 - 시장법인과 주요 출하조직간을 Fax 또는 PC로 연결지도

- 생산자조직은 재배의향, 식부면적, 작황, 출하예정량 등 정보입력, 도매시장법인은 거래물량, 거래가격, 일일수요량 등 정보 제공
- 생산자조직이 입력한 정보의 정확도를 평가하여 농협과 전국 작목반간 유통정보망의 정확도 및 활용도 제고
- 관측정보, 통계정보의 생산방법 및 유용성을 재평가·개선

바. 생산자 자율에 의한 수급 및 가격안정의 제도화 강구

- 생산자가 생산계획에서부터 출하에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에서는 정책 우선지원 등을 통해 뒷받침
- 과잉생산시 규격미달품 폐기, 수매 등을 적극 실시하여 산지에서부터의 수급안정화 실시

5. 결론 및 요약

- '96. 1 유통시장의 개방은 그 이전 UR협상에 따른 농산물시장개방보다도 국내 농산물유통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유통업체는 규모화, 체인화로 국·내외로부터 양호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 지금까지 수입이 불가능했던 신선 농수산물까지 해외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짐.
- 한편,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국내 농산물 생산·출하형태로는 새로운 수요형태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유통비용 발생 및 불공정거래의 원인제공

- 지역별, 품목별로 생산자의 조직화를 유도하여 산지에서 선별된 규격상품을 출하토록 하는 시책을 강력히 추진
 - 조직중심의 협업을 통해 규격상품화하여 유통을 효율화하고 시설활용도를 제고
 - 공동생산출하활동이 우수한 조직 및 그 구성원에 대해 모든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
- 농가개별 출하품을 대량으로 거래하기 위한 도매시장, 공판장, 간이집하장 등 기존의 유통시설에 대한 신규투자는 억제하고, 대신 기존 유통시설의 보완, 규격출하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냉장유통체계(cold chain)구축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한 표준화기제화에 집중 투자
- 도매시장 등 관련제도에 신축성을 높여 시설운영 및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 산지와 도매시장의 상호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사전 생산 및 출하조정을 통해 수급 및 가격을 안정화

여 백

II. 산지유통시설 운영 우수사례

1. 농산물 포장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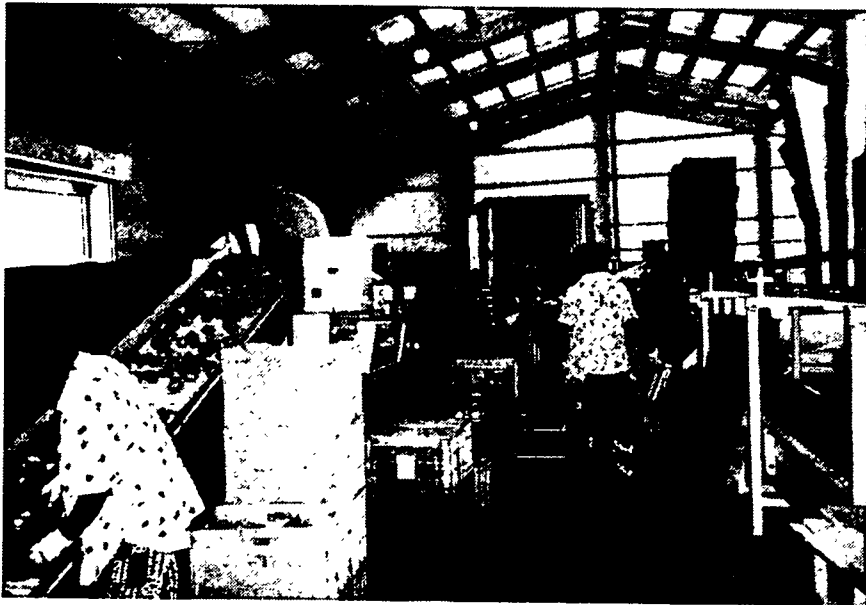
2.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3. 농산물 간이집하장

여 백

1. 농산물 포장센터

재산 영농조합 농산물 포장센터



대표자	김영학 (☎: 0374 - 34 - 0610)				
소재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560				
완공년도	'96	조합원수	14명	출자총액	160백만원
취급품목	토마토,감자,옥수수			취급량	625 톤
시설규모	부지: 1,000평,건물: 521평,선별기,포장기,지게차등				
투자비	500 백만원(국고: 200 지방비: 200 자담: 150)				

**유리온실을 이용한 토마토의 공동생산,선별로
유통업체에 직공급 연중 가동체계 구축**

첨단 유리온실에서 연중 신선한 과일이 생산되는 요즘은 계절 과일이란 말이 무색하다. 또한 농산물도 얼굴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공산품의 KS 마크처럼 품질인증품 농산물은 안전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토마토를 연중 생산 공급하는 재산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계의 발전상으로 꼽힌다.

특히 재산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포장센터는 전근대적인 의미의 단순한 농산물에서 탈피해 상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진 상업농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재산 농산물 포장센터는 유리온실에서 공동 생산된 완숙 토마토의 공동선별·포장출하에 이르는 연중 가동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준공된 포장센터는 1천평의 대지 위에 2백 40평의 선별장과 2백평의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의 제반 시설을 규모화했다.

이곳에서는 토마토를 비롯 감자, 양파, 옥수수 등을 취급, 재산 영농조합법인이 지난해 한해동안 올린 매출규모는 10억 원대에 이른다

현재 재산 농산물 포장센터의 위치는 강원도 평창군은 영동

고속도로 장평 인터체인지에 인접해 있으며, 유리온실 설비로 토마토를 연중 생산함은 물론 인근의 대화, 봉평 지역은 찰옥수수 주산단지로서 전국 생산량의 20 ~ 30%를 공급하고 있다. 또 평창군은 전국 감자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오이, 당근, 양채류 생산도 활발한 곳이다.

평창군에 재산 영농조합법인이 결성된 시기는 지난 92년 10월이다.

김영학 조합대표를 포함해 14개 농가가 토지 2만평을 현물 출자해 조합을 설립하고 이듬해 6천평의 유리온실 4동을 건설했다.

전 조합원이 균등한 출자로 조합운영에 적극 참여

전조합원의 균등한 출자로 설립된 재산영농조합법인은 수시로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전조합원이 조합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모범적 경영을 펼치고 있다.

일례로 조합원이 재배한 감자의 경우 산지시세가 하락할 시 적정가격 수준을 보장하는 등 철저하게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조합 소유의 유리온실에서는 연 3기작으로 방울토마토 및 일반토마토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된 완숙토마토는 7등급까지 형상 선별과정을 거쳐 품질 인증품 박스에 포장돼 대형유통업체에 매일 공급된다.

특히 재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토마토가 지난해초 농산물

검사소로부터 품질인증품으로 지정을 받아 품질의 공신력을 획득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도 한때 고비를 맞기도 했다. 지난해는 원인모를 토마토 병해가 발생해 곤욕을 치렀다. 게다가 난방용 경유값 인상 등 외부적 악재까지 겹쳐 당초 기대만큼 수익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재산 영농조합법인은 파종면적을 기준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총계약규모의 10%를 선지급한다. 무엇보다도 계약 당시 수확후 단경기 가격을 예측, 최대한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해 감자시세 하락으로 적자를 보았으나, 조합원들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합은 평창군 관내 스키장,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 등 대량수요처의 편의제공 및 거래 확대를 위해 기타 농산물 30여종을 타지역에서 구매, 공급해 주는 꼼꼼한 매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합 출하량의 90% 상당이 유통업체와 대량수요처에 직공급된다.

또한 서울지역 유통업체 7개소의 출하를 위해 격일로 조합 보냉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상품성을 그대로 유지,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포장센터에서 출하되는 규격은 토마토 4kg, 10kg과 감자 4kg, 10kg, 20kg박스 포장이 기본이지만 거래처에서 별도로 요청

할 경우 포장단위를 다양화해 납품하고 있다.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밭 빠른 경영의 일면인 것이다.

재산 영농조합은 또 용평일대에도 널리 알려져 인근 주민 및 식당 관광객들의 구매욕구가 높아 포장센터에서 소비자 직판도 실시하고 있다.

재산 영농조합법인은 이렇게 다양한 판로망을 스스로 갖춰 나감으로써 농가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보장하고 있어 영농조합의 전형적인 모델로 인정받는다.

또한, 재산 농산물 포장센터는 조합 소유의 유리온실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품목인 옥수수, 감자 기타 시설채소 등을 복합적으로 취급해 주민 소득 향상에도 적극 기여해 호응이 높다.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산실임을 알 수 있다.

부여 밤 영농조합 농산물 포장센터



대표자	이 건 훈 (☎: 0463 - 33 - 9933 ~ 6)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90 - 2				
완공년도	'95	조합원수	205명	출자총액	432백만원
취급품목	밤,포도,감 등			취급량	1,254 톤
시설규모	부자: 2,327평, 건물: 1,024평,선과기,포장기,지게차등				
투자비	2,400 백만원(국고: 600 지방비: 450 자담: 1,350)				

**세계 최초로 개발된 밤 세척 라인…
총출하량의 70% 이상을 소포장 상품화**

세계 최초로 개발된 밤 세척·선별라인을 갖춘 부여밤 농산물 포장센터는 완벽한 농산품을 출하하는 전진기지이다.

부여밤 농산물 포장센터는 2천여평 대지에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시설투자 규모만도 24억원대에 이른다. 부여일대 밤생산 농가들이 이곳 포장센터에 출하하는 모든 밤은 1·2차선별과 건조, 등급별 분류, 소포장 과정을 거쳐 상품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러한 부여밤 농산물 포장센터를 운영하는 부여밤 영농조합 법인은 지난해 총 1천3백여톤을 소포장 출하해 19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조합원들의 선진 영농의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감한 투자,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의 결실이다.

부여밤 영농조합법인의 모태는 지난 81년부터 부여군내 밤 생산 농가가 상호 생산기술을 협의 교환하면서 자생적으로 결성한 부여군 밤생산자 협회다. 당시 저장시설이 전무해 수확과 동시 출하할 수 밖에 없었던 터라 홍수출하로 인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던 실정이었다.

그러나 농업인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강한 의식이 싹트면서 90년에 저온시설 2백평을

임대 운영하기 시작했다.

꾸준한 조직화 규모화를 추진해 오면서 지난 94년 6월 현대표인 이건훈 씨를 비롯 43명의 조합원이 출자한 4억 5천여만원으로 부여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케 됐다.

부여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결성에 이어 농산물을 상품화하기 위한 시설을 적극 모색하면서 과감한 시도에 나섰다.

조합 자체에서 네덜란드 GREEFA사에 의뢰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밤세척 선별기를 도입한 것이다

보다 안전하고 차별화 한 농산물로 승부수를 걸겠다는 의지가 부여밤 영농조합법인의 경영 비결인 셈이다.

이와 함께 CA저온저장고, 집하장, 관리사무실, 계근포장기, 박스 포장기 등 일련의 시설을 완비한 부여밤 농산물포장센터는 지난 95년 12월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부여군 구룡면에 소재한 포장센터는 국도변에 위치해 생산농가의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대전 서울 등 대도시 소비지 출하의 최적지인 입지를 자랑, 새로운 밤 주산지로 부상하고 있다.

부여밤 농산물 포장센터내 설치된 저온저장고는 일시저장능력 1천 8백톤, 연간 3백일 가동이 가능하며 선별라인도 1일 15톤씩 연간 2백30일 가동된다.

이러한 기반시설을 통해 포장센터는 지난해 밤 1천 2백톤을 비롯 포도 감 등 총 28억 4천여만원 규모의 농산물을 취급했다.

**면단위로 5명씩 선임된 이사들이 조합운영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포장센터의 외형적 신장은 기반시설과 함께 면단위로 5명씩 선임된 총 23명의 조합이사들의 중추적 역할도 한 몫하고 있다. 조합이사들은 조합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물론 조합원들과 상호이해 증진을 돕는 가교 역할과 지역물량 확보,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애경사까지도 챙긴다.

부여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총 2백 5명이다. 주로 밤의 작황 예측이 가능한 8월초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밤의 생육에 관한 이론교육, 전정기법, 간벌방법, 약제살포, 시비요령, 품종 선택 등의 영농교육이 실시된다.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서울, 진주, 하동 등의 시세를 고려해 제시한 수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여부를 결정한다. 수탁을 의뢰할 조합원은 생산한 밤을 각 마을에 배분된 선별기를 이용해 40KG PP마대로 포장센터에 출하한다.

출하된 밤은 포장센터에서 다시 물에 띄워 불량과를 제거하고 바로 선별기에 투입돼 건조작업을 거치면서 등급별로 분류 포장 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1KG, 4KG, 8KG 등으로 소포장된 밤은 조합의 판로망인 중부시장, 경동시장, 가락시장의 도매상인들과 금성식품, 고려식품 등 수출업체로 거래된다.

예전과 달리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생산물량중 출하희망 물량을

전량 매취 또는 수탁보관해 시장동향을 파악, 판매를 대행해 줌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에 직접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여밤은 포장센터에서 최신 선별라인을 통해 재선별 과정을 거쳐 CA저장고를 활용, 저장성을 높이고 있어 상품성이 뛰어 나다.

또한 조합에서 제시하는 수매가격은 산지가격으로 형성돼 일부 수집상들의 포전 횡포를 견제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소득 보장 역할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최신 설비인 CA저장고를 이용
다양한 품목의 저장기법 향상 연구시행**

부여밤 영농조합법인은 현재 가공용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중국산 밤과의 경쟁적 우위를 확신하고 있다.

이에 가공 판매방안을 모색중으로 향후 내수시장은 물론 수출도 적극 시도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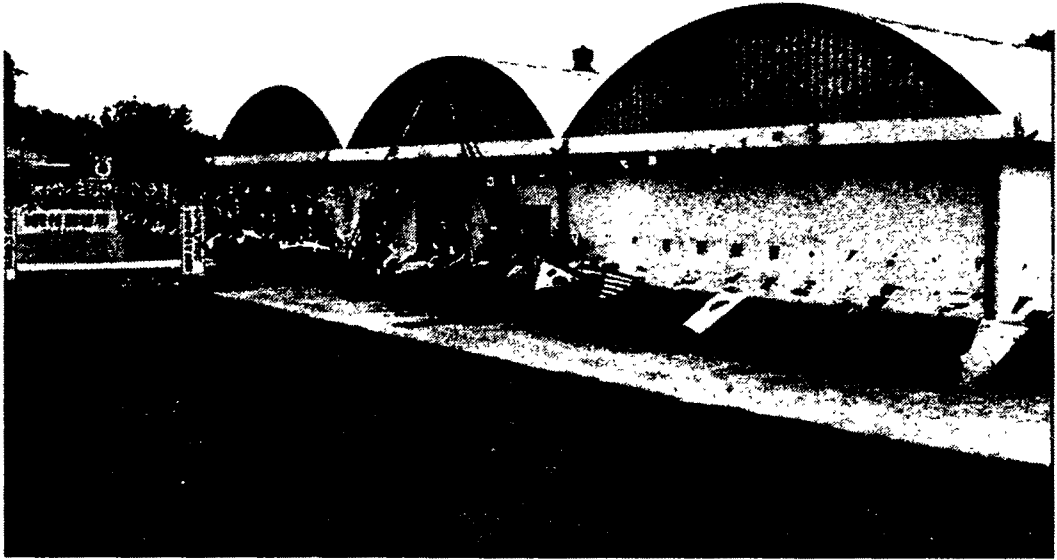
이를 위해 시설 확충도 꾸준히 전개키로 했다.

우선 1차 가공단계인 밤 까는 작업의 기계화를 추진중이며 최신 설비인 CA저장고를 활용해 높은 상품성을 유지하고자 대학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저장기법연구를 실행하고 있다.

앞으로 조합은 주품목인 밤의 소득은 조합원에게 전액 환원 하고 부대품목인 포도, 감, 버섯 등의 소득을 조합 운영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대한 동기 부여로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당당한
농업인의 위상까지도 세워 나가겠다는 조합의 야심찬 청사진
이다.

도고농협 농산물 포장센터



대표자	전 원 상 (☎: 0418 - 41 - 4368)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산리 161 - 5				
완공년도	'95	조합원수	1,480명	출자총액	186백만원
취급품목	쪽파, 대파			취급량	1,912 톤
시설규모	부지: 1,549평, 건물: 485평, 탈피기, 포장기 등				
투자비	1,071 백만원(국고: 428 지방비: 321 자담: 322)				

포장센터 운영이 도고쪽파 유통구조 개선의 전환점이 되어 ….

제주, 보성, 무안 등과 함께 전국의 쪽파 주산지중 한 곳인 충남 아산지역에는 「텃밭야채 (상품명)」로 잘 알려진 도고쪽파 생산지가 소재하고 있다. 아산 도고농업협동조합이 설립한 농산물 포장센터는 도고쪽파의 산파역을 담당하고 있다.

도고농협은 95년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1차년도에 부지 1천5백평에 건평 3백50평의 포장센터를 건립하고, 다음해에 1백40평 규모의 시설을 추가로 확대 설치했다.

당시 도고농협은 산지에서 직접 소포장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할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포장센터 설립에 나섰다. 또한 쪽파는 주로 발파기로 거래되는 만큼 산지를 장악하고 있던 상인들의 영향력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세한 조합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하게 됐다.

농협이 포장센터를 직접 운영해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해 줌으로써 그동안 형식적인 판매사업에 머물러 왔던 농협의 기능을 실질적인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도고농협 농산물 포장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총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백평의 저온저장고 및 1백평의 선별작업장, 사무실을 갖추고 있다. 포장센터에는 냉동탑차 2대를 비롯 지게차, 차량계근대, 자동 및 수동탈피기, 자동포장기, 결속기 등 주요 기계장비 일체를 설치, 가동중이다.

이 곳 포장센터는 다른 지역과 달리 도고와 인근일대에 공장 시설이 없어 유휴 노동력 조달이 용이한 특징이 있다. 특히 포장센터 관리직원도 사업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해 본소 인사교류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운영 전문성을 높이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도고농협 포장센터는 본소와 별도의 독립된 회계단위로 전량 매취사업방식에 의해 운영된다. 포장센터의 주취급품목인 쪽파는 산지 수집상들의 발매기 거래가 지배적이므로 수탁방식보다는 포전매취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포전매취가격은 일반적으로 계약당시의 도매시장 가격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로 안정적 판매망 확보

쪽파 포장규격은 2백g, 5백g 및 1Kg등 3종의 포장품으로 출하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를 위해 2백g과 5백g규격 2종류만 생산하고 있으며, 당초 도매시장을 겨냥한 1Kg규격은 생산되지 않고 있다.

즉, 포장센타의 주요거래선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인 것이다. 이 중에서 도고농협 포장센타의 가장 큰 판매처는 (주)농협유통으로 전체물량의 40%를 출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해태유통과 LG유통에 각각 30%, 20%정도의 물량을 출하한다.

포장센타는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다음날의 주문량을 매일 신청받고 양측에서 별다른 가격조정 제의가 없는 경우 이전가격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계약거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만일 시세변동에 따라 가격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양측 협의에 의해 일정시점 이후의 출하분은 조정된 가격으로 정산하게 된다.

소포장 쪽파의 판매가격은 원칙적으로 판매당시 시세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이제까지 실제 판매가격의 진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돼 안정적인 거래기반을 조성했다는 평이다. 도고농협이 출하한 2백g짜리 소포장 30단으로 포장된 6Kg 1박스 판매가격은 1만5천원내외 수준에서 결정됐다. 10Kg짜리 대파가 도매시장에서 5천~8천원선에 거래된 것을 고려할 때 소포장 쪽파의 부가가치 제고기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고쪽파 유통의 콜드체인화로 유통업체
거래요청 급증**

도고농협의 포장·상품화된 「텃밭야채」 도고쪽파는 보관,가공 처리 과정에서부터 소비지 슈퍼마켓까지 콜드 체인 시스템으로 처리된다. 농산물의 신선도가 산지에서 소비자 식탁에까지 유지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에 농협유통 및 LG유통에서 납품물량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한양유통에서도 거래를 요청하나 현재 생산시설 부족으로 인해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치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도고농협은 농가가 수확한 농산물을 산지에서 도매시장 경락가에 매취함으로써 도매시장 출하시의 운반비, 하역비, 공판장 수수료 등의 절감효과가 있어 농가수취가격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함께 포장센터 이용시 농협에서 제공하는 운반용 상자에 수탁 출하하기 때문에 농산물 결속작업이 생략되어 출하소요 시간도 절감해 농가에서는 쪽파 생산기술 개발에 잉여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등 생산력 증진 효과도 크다. 특히 농가의 생산 기술 향상을 지원키 위해 영농지도사를 일선에 배치시켜 생산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일관 지도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도체제로 작부체계 개선을 추진, 연간 최대 5기작 까지 가능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이 일대에 쪽파, 대파 전업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포장센터에 일평균 작업인원 15명을 고용해 연간 1억여원의 부가가치를 농민에게 농외소득으로 환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포장센터 가동에 따라 산지에서 선별, 세척, 포장까지 이루어져 도시쓰레기 발생원을 제거하는 한편 산지의 농산물 쓰레기는 퇴비로 재자원화 시키고 있어 환경보전에도 기여한다.

무엇보다 포장센터에서 쪽파를 수매하기 이전에는 위탁상인의

불공정한 포전매매가 성행했으나, 현재는 포전매매가 없어지고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농협의 매취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도고농협이 전개하는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사업은 급변하는 유통환경속에서 농협 판매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임에 틀림없다.

반면 사업초기에 나타나는 적자는 영세한 농협여건을 감안할 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판매처 확대와 신상품 개발, 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 유희화 상태인 저온저장고는 활용도를 제고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일괄거래를 선호하는 대형유통업체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쪽파 단일품목 체제의 현 소포장 사업을 2 ~ 3개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도고 농협은 대파나 부추 등과 같이 추가시설이 크게 필요치 않는 품목을 확대 취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센터 사업방식을 매취 위주에서 조합원들의 무조건 수탁방식을 전제로 하는 수탁사업으로의 전환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도고농협의 부단한 운영개선 노력은 산지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농가에게 직접 환원시켜 준다는 경제적 의미와 함께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본래의 사업기능을 실현하겠다는 규범적 의미까지 엿 볼 수 있다.

전주원협 농산물 포장센터



대표자	복영모 (☎: 0652 - 251 - 5787)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74 - 8				
완공년도	'95	조합원수	1,260명	출자총액	1,694백만원
취급품목	사과, 배, 토마토			취급량	1,768 톤
시설규모	부지: 1,209평, 건물: 336평, 선별기				
투자비	1,015 백만원(국고: 200 지방비: 150 자담:665)				

철저한 선별 · 규격포장.....완벽한 상품화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의 농산물 포장센터는 전주시 사과, 배, 토마토 등 생산농민 1천3백여명이 1년 365일 연중 이용하고 있다. 단순한 청과물이 이곳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선별되고 소비자 구매욕구에 부합하도록 포장되어 완벽한 상품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원협 농산물포장센터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주시의 또 하나의 보고인 셈이다.

전주원협은 농협중앙회가 설립되기 2년전인 지난 59년에 이미 결성됐다. 근 38년간 운영돼온 전주원협은 급변하는 영농환경속에 생산농가들과 동고동락해온 세월이 깊다. 현재 전주원협 조합원수 1천2백60명에 27개 작목반으로 구성돼 있다. 품목별로는 사과 2개(전주사과 · 완주사과), 배 1개(전주배) 및 복숭아, 호박, 참외, 토마토 등의 작목반 조직이 결성되어 조합의 기초 생산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전주지역은 배 생산에 적합한 기후조건을 가져 우수한 품질의 과실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속에 청과물 전문농협으로 성장해온 전주원협은 지난 95년에 지역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전근대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사업인 농산물포장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전주원협 농산물포장센터는 1천2백여평 대지에 선과장 2백36평과 저온저장고 1백평 규모로 선별기, 파렛트 등 제반시설을 보유

하고 있다. 총소요액은 농협자체부담금 6억7천여만원과 국고보조 2억, 지방비보조 등 약 10억여원이 투자되었다. 이렇게 농협 자체부담이 타 유통시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은 농산물 유통개선에 대한 전주원협의 강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주원협 복영모 조합대표는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주도가 되어 농산물 산지유통의 구조적 모순점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길은 국내 농산물의 규격화·포장화와 등급의 상향표준화를 실현하는데 있다는 믿음으로 농산물포장센타를 적극 추진하게 됐다』며 당시 사업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전주원협 농산물포장센타는 사과·배 과수원이 밀집해 있는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회도로 개통과 함께 수송상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또 농산물 공판장과 인접해 있어 일괄적인 유통·출하체계를 갖추므로써 시설 운영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농산물포장센타의 특징은 제반 시설의 연중가동에 있다. 시설물을 연중 개방하여 생산농가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명실상부한 농민조합원의 시설로써 자리매김되고 있다.

성출하기 출하조절 …… 수취가격 지지

농산물포장센타 내 선별기는 매월 20일 이상, 연간 2백60일의

높은 가동실적을 보인다. 지난 해는 사과 1천5백톤을 비롯 배 1백52톤, 토마토 1백톤을 선별·포장·출하했으며 총 1천7백68톤을 선별, 월평균 1백47톤의 선별실적을 기록했다. 현재 선별기는 한성(주)의 3조식 중량선별기로 1일(8시간 기준) 1천4백상자를 선별할 수 있다. 농산물포장센터 중 저장고 역시 1년 년중 가동 상태에 있으며 지난해는 1천1백톤을 저장·보관·출하했다. 이러한 저장고의 연중가동으로 농산물의 상품성유지는 물론 성출하기의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폭락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농가 수취가격 보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동안 품목별 저장량에 따르면 사과 2백45톤, 배 3백20톤, 양파 34톤, 감자 1백69톤, 무 2백28톤과 마늘, 당근, 양배추 등 월평균 총 1백톤의 청과물을 저장했다.

농산물포장센터에서 선별·포장 또는 저장 등을 통해 상품화가 마무리된 농산물은 주로 전주원협 공판장으로 출하된다. 선별장이 공판장과 인접한 입지적 장점으로 선별 후 출하가 용이,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호박과 복숭아는 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계통출하를 통해 서울로 출하한다.

이곳 농산물포장센터에서 공판장에 출하되는 물량은 공판장 전체 판매물량 가운데 사과는 30%, 배는 10%상당을 차지하는 등 포장센터 선별장이 운영된지 1년만에 높은 이용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주원협의 농산물포장센터 및 저온저장고를 이용하는 생산 농가는 작업비 절감 및 노동력 감축에 기여함은 물론 선별기를 이용하여 포장출하할 경우 수작업에 의한 선별시보다 등급선별이 철저하므로 출하시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한다.

또 생산농가에서 선별작업이나 저장고 이용을 원할 때는 조합차량을 지원해 운송을 책임져주고 있다. 이와함께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컨테이너 상자 등도 무상 임대해 주는 꼼꼼한 지원사업도 병행 운영해 이용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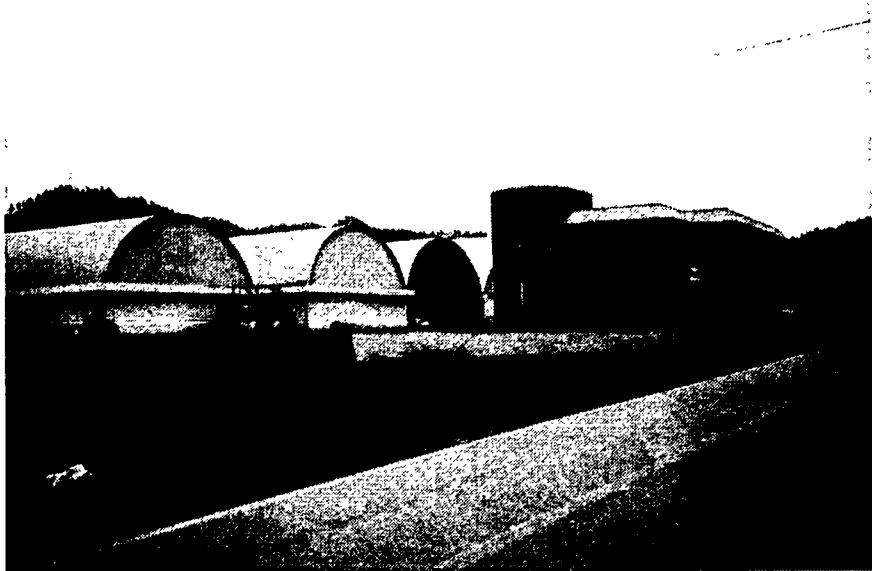
특히 저온저장고는 20평형 5동을 보유해 전기세 정도의 실비만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제반비용은 조합부담으로 관리, 유지된다. 저온저장고 열쇠를 이용자 각개인에게 공급, 원하는 시간에 저장농산물의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파격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포장센터 시설내에 농협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선별이나 저장시 필요한 지게차, 파렛트, 각종상자, 포장용기 등 관련시설 및 물품을 쉽게 이용토록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는다.

전주원협은 앞으로 농산물포장센터의 이용가능한 품목을 확대하고 현재의 작목반 단위 이용체계에서 생산자 각 개인별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유도, 전체 생산농민에 대한 혜택을 더욱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한 전주원협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현재 15Kg, 20Kg 포장위주에서 향후 포장단위를 5Kg이하로도 소규모·세분화키로 하고 과실의 랩포장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참다래 유통사업단 영농조합 농산물 포장센터



대표자	정운천 (☎: 0634 - 33 - 5577)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583				
완공년도	'96	조합원수	700명	출자총액	1,025백만원
취급품목	참다래, 고구마 등		취급량	3,922 톤	
시설규모	부지: 5,000평, 건물: 2,357평, 선과기, 포장기, 지게차등				
투자비	502 백만원 (국고: 200 지방비: 150 자담: 152)				

- ◆ 정부 농산물 포장센터사업 적극 참여 선진농업 실현, 선별포장으로 종전보다 20 ~ 30% 수취가격 높아
- ◆ 조합원 포장센터사업 자금부담 반대... , 정부지원과 설득끝에 건립
- ◆ 참다래 운영수익은 전액 농민에게 환원하고, 조합의 운영비는 부대사업 수익으로 충당
- ◆ 전남지역 14개 시·군 2,874 농가가 참여하는 광역조직으로 공동선별, 공동계산제 정착, 지역 농가 부가가치도 높여줘
- ◆ 등외품 참다래 주스개발 ... 국내외 판매
키위 판매가 조합제시 ... 경락가 하락하면 조합서 개입

포장센터 건설로 수취가격 20 ~ 30 % 높아

우수 농산물을 저렴하게 생산, 고소득을 올린다면 그 이상의 농업은 없을 것이다.

또 아무리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관리가 허술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높은 가격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따라 정부가 최근 농산물 유통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포장센터사업은 선진농업을 이룩하는데 가장 선행될 과제라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이같은 농산물 포장센터를 건설하여 안정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참다래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 (대표 정운천)이다.

참다래유통사업단은 '96년 2월에 5억 여원을 투자 포장센터를 건립, 조합원들이 생산한 참다래 (일명 : 키위)를 선별·포장하여 종전 보다 20 ~ 30% 높은 수취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주변에 포장 유통시설이 없기 때문에 마늘 양파 고구마 월동배추 등 해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다수 농산물을 포장·유통하여 이 지역 농가들의 부가가치도 제고 시켜주어 포장센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참다래유통사업단은 지난 89년 12월 한국참다래 협회로 출범, 91년 7월 자본금 3억6천만원으로 한국참다래 유통사업단을 창립 시키고 94년 5월 가공공장 등록에 이어 식품가공업 허가를 취득했다.

또 95년 9월 한국참다래 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 등기를 위하여 국내 품목별 영농조합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모범 조합이다.

참다래 영농조합의 포장센터는 집하장 2백평을 비롯 선별장 6백평, 저온저장고 1천2백7평, 기타시설 3백50평등 총 2천3백57평을 보유하고 있다.

또 시설은 냉동기 18대, 선과기 3세트, 수동선과기, 콤퓨레샤, 자동테이핑기 각각 1대를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완벽한 포장센터의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보냉차와 지게차 6대, 팔레트 5천1백개, 운반상자 14만8천27개도 보유, 연중 포장센터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참다래 영농조합의 사업장 운영은 포장센터 운영사업을 비롯 생산 및 공동출하 가공 무역업, 고구마 단감 월동배추 마늘 양파 등 매취사업, 주품목인 참다래는 전량 수탁판매사업이다. 또 등외품을 이용한 참다래주스 가공 및 판매, 농사용 자재등 구매사업, 영농기술 전수사업 등도 병행 시행하고 있다.

조합원 반대 불구 설득 ... , 정부지원으로 사업 참여

이에대해 정운천 영농조합대표는 처음 조합원들에게 농산물을 제값 받기 위해서는 선별 포장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으나 많은 예산과 참다래 수확이 일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며 반대의견을 제시, 포장센터사업이 벽에 부딪친 일이 있었다 한다.

정대표는 그러나 정부의 도움과 조합원들을 끝까지 설득시킨 결과 포장센터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포장센터사업으로 조합을 꾸려나갈 정도로 사업이 정착됐다고 귀띔했다.

그는 특히 관내 포장센터가 없어 지역 농산물들을 선별 포장화하여 출하함으로써 좋은 값을 받게 되어 지역 농가의 부가가치도 높여 주고 있어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포장센터사업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참다래사업이익은 전액 조합원 환원 ... 부대사업으로 조합운영

조합은 참다래 사업을 통한 사업수익을 생산 농가에 전액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기타 비수기에 시설물 등을 이용한 부대사업으로 조합운명을 한다는 경영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참다래 영농조합의 조합원자격은 20세 이상의 성년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참다래 과수원을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축산물의 연간 매출액이 1백만원 이상인자 혹은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시켰다.

다만 준조합원은 조합 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자와 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 또는 위탁하는 자, 조합법인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 유통, 가공하는자, 조합법인에 참다래 등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로 자격을 주고 있다.

현재 7백여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농법인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를 통해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을 받고 조합원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새로운 영농기법 전수 및 농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또 회사 집합교육은 연간 5회 정도 실시, 자체 농장에서의 시험재배 결과를 농가에 전수하는 등 타수범 사례도 전수시킨다. 이와함께 영농지도 자문직원을 3명배치하여 12월부터 익년 9월까지 전조합원의 농장을 5회 정도씩 방문하여 지도, 교육하는 조합으로 거듭나고 있다

생산량 측정... 수입상품과 경쟁력 제고

참다래 영농조합의 주품목인 참다래의 물량확보는 8월하순경 현장지도 직원들에 의해 수량이 측정되며 생산농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그 해의 작황, 해외시장의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수입상품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범위에서 농가의 수취가격을 결정, 조합에서 수취가격에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판매가격을 책정하는데 96년 사업분에 대한 농가의 수취가격은 KG당 1천 5백원으로 결정했다.

참다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모두 생산농민에게 원칙적으로 환원해 주기로 하여 95년 사업분에 대해 96년에 3억원을 조합원에게 돌려 주었다.

참다래의 국내 총 시장규모는 5 ~ 7천톤으로 조합에서 취급한 양은 2 ~ 3천톤 정도이다.

조합은 이밖에 관내에서 고구마 42톤을 매취하고, 월동배추 2천톤을 수탁저장 분산 출하하여 조합원들의 수취가격을 높여 주고 있다.

참다래조합은 8월에 예상수확량을 측정하고 9월에는 각 농가에 농가별 수확시기를 통보하며 수확시기에 맞추어 수확용 플라스틱 박스(20KG)를 각 농가에 보급한다.

이때 해당농가에서는 조합에서 알려 준 시기에 맞추어 수확하고 수확한 참다래를 차도(도로 변)까지 운반한다.

조합은 차량으로 수확농가를 순회, 키위를 집하하여 즉시 선별기에 투입 등급별 수확량을 각 농가에 통보해 주는 동시에 운영위원회에서는 등급별 수확량 기준으로 수취가격을 결정하여 개별 농가 통장에 입금시켜 준다.

참다래의 선별은 기계에 미리 입력된 수치에 의해서 자동선별되어 농가별 등급별 입고량을 산출한다.

등외품은 자체 가공공장에서 주스로 가공하여 국내외에 판매 하게 된다.

참다래 주스개발은 충남대학에 가공방법의 실용화에 대한 용역을 의뢰, 미국 FDA에 세계키위협회를 통하여 식품 안전도 및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다만 참다래 식초개발은 생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상품화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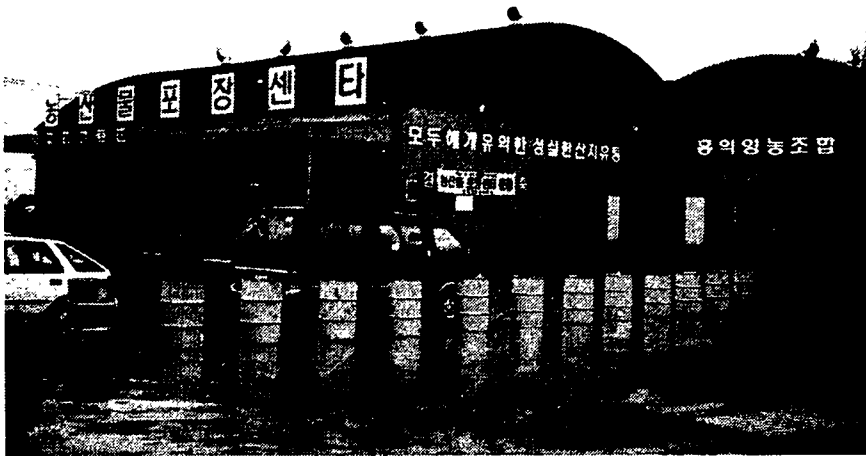
판매가 조합제시... 경락가 하락시 조합개입

참다래 조합은 서울지역에 90%를 판매하고 나머지 10%는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도시에 출하하고 있다. 가락동시장내에 서울사무소를 운영, 서울지역 판매망 확대를 위해 상주인원을 초기 2명에서 지금은 6명으로 증원시켰다.

판매가격 결정은 반드시 조합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산과 비교 상인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합은 가락동시장에서 상장 경매시 경매가격이 조합에서 제시한 가격이하로 떨어질 경우는 조합이 직접 경매에 개입하여 적정가격을 유지시키고 있다.

홍익 영농조합 농산물 포장센터



대표자	김진우 (☎: 053 - 851 - 8500 ~ 3)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다문리 500				
완공년도	'97	조합원수	125명	출자총액	230백만원
취급품목	과실류, 엽채류 등 70품목			취급량	3,500 톤
시설규모	부지: 1,637평, 건물: 431평, 선별기, 포장기 등				
투자비	704 백만원 (국고: 232 지방비: 174 자담: 298)				

간이포장센터 운영경험을 기초로 한 농산물 포장센터 운영으로 유통업체에 직공급체계 정착

소규모 농산물 포장센터로 출범, 활발한 영업활동에 힘입어 밀려드는 주문 물량을 감당할 수 없기에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대형 포장센터로 변신한 홍익 농산물 포장센터,

경북 경산시 진량면 다문리에 소재한 홍익 농산물 포장센터 (대표 : 김 진 우)의 이같은 변신은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파악키 위해 설문조사 등으로 농산물 포장단위, 포장디자인, 자체 브랜드(풀누리)를 개발하는 적극적인 사업참여 때문이다.

부산물을 활용한 식자재 판매사업 추진

특히 홍익 농산물포장센터는 소포장 작업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농산물의 부산물을 요식업소, 패스트 푸드점, 기업 등 단체 급식소에 세척, 절단하여 식자재로 공급함으로써 알뜰 경영도 성공의 한 몫을 차지했다.

홍익 포장센터는 여기에 지역 여건도 좋아 인근 진량공업단지에서 1백 91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나인공업단지, 와촌공업단지가 건설중이다 인구 증가에 따른 아파트단지 등이 조성되어 농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 포장센터 사업이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잠재력 또한 큰 장점도 있다.

이같은 홍익 농산물 포장센터는 지난 89년 농산물 가격폭락

으로 극심한 손해를 보아 온 농업인 5명(현 조합이사로 활동 중)이 판로부터 확보하고 농사를 짓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92년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단을 설립한 것이 시초이다.

이에따라 이들은 자가 농산물을 소포장하여 일반수퍼 등에 납품하기 위해 소비지인 경산시내에서 컨테이너를 구입, 간이 소포장센타를 수동랩기 1대와 전자저울 1대로 시작했다. 이후 소비자 및 유통업체로부터 이들 농산물을 신뢰하는 좋은 반응을 보여 2년후인 95년 3월에 흥익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96년 4월에 포장센타를 착공, 96년말 완공케 됐다.

현재 흥익 영농조합법인은 정규직원 16명과 일용직 6명이 상근하고 있다.

포장센타 시설은 대지 1천6백37평으로 집하장 38평을 비롯, 선별장 2백8평, 저온저장고 1백평, 기타시설 85평 규모의 포장센타이다.

또 기계장비는 자동포장기 4식 5종에 선별기 1식 3종, 세척기 1식2종, 수냉식 예냉처리기 1식, 절단기 2식, 세정기 1식, 탈수기 1식, 콘베어 시스템 1조, 전동지게차 1대, 운송차량 10대 등 운반상자 3백개, 파렛트 1백개 규모이다.

<p>소품목 대포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품목 소포장 중심의 운영</p>
--

포장센타 운영은 기존 포장센타의 소품목 대포장 시스템 체계

에서 탈피, 다품목 소포장 시스템으로 운영, 유통업체에서 요구하는 모든 품목을 취급하고 희망하는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예컨대 기존 관행적인 15kg 단위 중심의 포장이 아니라 5kg, 10kg 단위로 포장을 차별화하는 동시에 포장재질, 박스제작 등도 별도 주문에 의해 제작 사용하고 있다.

또 원료농산물은 조합원 및 인근 생산농민의 생산량을 계약에 의해 사전 확보하고 부족시 타지방에서도 우수 농산물을 조달하고 있다.

홍익 포장센터의 운영은 농산물 입하 ⇒ 세척·예냉처리 ⇒ 저온고입고 ⇒ 선별 ⇒ 박피세척 ⇒ 전처리 ⇒ 절단 ⇒ 세정·예냉 ⇒ 탈수 ⇒ 포장 ⇒ 저온고입고 ⇒ 출하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홍익영농조합의 모든 거래는 유통업체, 단체급식소로 연중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원 및 지역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 확보하고 생산이 중단되거나 부족시는 인근 지역에서 반입하는 한편 일부 과일은 시장에서도 구입하고 있다.

조합원 전량 계약재배 30% 선도금 수확 10일전 완불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계약재배를 원칙으로 하되

수매가를 결정할 때에는 물품대의 3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수확 10일전에 정산 완불해 준다.

특히 계약불이행 방지를 위해 생산농민과 조장이 상호 일정액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시켜 계약불이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

매취사업은 포장센터에서 취급물량이 많은 배추, 무, 양배추, 당근, 고추, 오이, 등을 일시에 3 ~ 4개월분을 확보하여 물량부족에 대비하고 있다.

수확은 조합에 소속된 전문수확단 5 ~ 10명을 운용하고 수송은 조합에서 현장 품질검사를 거친 후 직접 포장센터로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포장센터를 거친 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해 조합 이사들이 팜플렛과 시제품을 가지고 각 유통업체를 직접 방문,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다만 유통업체들은 영농조합의 자금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담당자들을 조합에서 확보하고 있는 생산현장으로 초청,확인시켜 주고 소포장 현품을 직접 눈으로 보게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때 소포장 판매는 포장센터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포장규격 이외에 유통업체의 요구에 맞게 개별포장을 실시하고 대형 유통체인점, 농축수협 직판장, 백화점, 일반수퍼, 농산물 전문점, 식품점 등 32개 공급처에 매일 공급해 주고 있다.

홍익 농산물포장센타의 장점은 포장외에 농산물은 학교급식소, 기업체 급식소, 외식업체, 가공업체의 주문을 받아 농산물을 세척, 절단하여 위생냉장후 식자재로 판매하기도 하여, 모든 농산물을 판매,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화, 팩스, PC 주문판매

홍익 영농조합은 이밖에도 과거 아파트 단지 시장개설 등을 통해 연결이 되어 있는 소비자와 거래처로 부터 팩스, 전화, PC 등으로 주문을 받아 선물센타 세트제조, 과일부패, 주문 농산물 등도 공급해 준다.

또한 거래처와 고객관리를 위해 포장품의 규격포장재질, 포장 디자인 등은 연1회 정기적으로 아파트단지,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할 점을 찾아 보완해 나가고 있다.

홍익 영농조합은 이와함께 일일재고, 매출관리, 수발주 관리를 유통자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P.C 로 관리, 항상 수급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그러나 이같은 홍익 영농조합에도 애로사항은 있다. 바로 매일 매일 발주를 받아 소분포장 작업후 대형 유통업체에 1일 공급을 해야 하는 포장센타에서 만일 선별포장기기에 고장이라도 난다면 납품공급에 큰 차질을 초래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입게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별라인을 복수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 현행 저온저장고 1백평은 소분포장된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전용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저장성 향상 및 물량의 사전 확보를 위해 원료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가 2백평 정도는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같이 소규모 포장센터에서 현대화시설을 갖춘 포장센터로 거듭 날 수 있었던 홍익 영농조합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성실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거래처를 관리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용현 명품토마토 영농조합 농산물 포장센터



대표자	신재균 (☎: 0593 - 34 - 0190)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891				
완공년도	'97	조합원수	54명	출자총액	63백만원
취급품목	토마토			취급량	1,200 톤
시설규모	부지: 786평, 건물: 203평, 선별기, 포장기 등				
투자비	570 백만원 (국고: 228 지방비: 171 자담: 171)				

공동선별, 공동출하 필요성 절실 ... 포장센터 건설

“ 포장센터가 완공되면서 위탁상인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고 대금지불도 연체하는 등 상인들의 횡포가 없어 졌지요“

용현명품 토마토 영농법인 대표는 경남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891번지에 포장센터를 설치한 후 신바람이 나 힘든지도 모르고 토마토 생산에 열을 올리며, 포장센터의 고마움을 이같이 말했다.

용현 포장센터는 96년 조합원들이 6천3백만원을 출자하고 정부의 지원으로 대지 7백86평에 1백평 자재창고, 2백평 등에 선별포장기를 설치했다. 시설규모는 자동선과라인(중량 8라인, 형상 1라인), 상하차 콘베어 1대, 지게차 1대, 파레트 2백개 등을 보유하고 4만여평의 하우스에서 생산된 토마토 1천톤을 선별, 포장화하고 있다.

용현명품 토마토영농법인이 이같은 포장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농가별로 수확, 선별에 따른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조합원들의 한결같은 공동선별, 공동판매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관내에서 생산된 토마토들은 진주의 위탁상인들에게 판매되어 가격은 상인들 마음대로 조작 결정되고 대금지불도 1주일을 넘기는 등 상인의 횡포에 개별 농가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 왔다.

이에 따라 토마토 농가들은 단체결성과 포장센타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93년 영농법인을 결성한 후 3년만에 갈망하던 포장센타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게 되었다.

또 종자, 자재 등의 공동구입, 공동육묘사업을 실시하여 생산비를 절감시켰고 선별, 포장으로 좋은 가격을 받게 되어 조합원들은 크게 만족하고 있다.

현재 용현명품 토마토영농법인에는 54농가에서 4만여평의 하우스토마토를 재배, 연간 1천톤을 생산하고 후작으로 수박 2백톤을 생산, 출하하여 연 15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용현 영농법인은 겨울동안의 일조량이 어느곳 보다 많고 기온도 높다는 지역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축성 토마토를 재배 하므로써 이같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의 강한 집념 ... 애로 딛고 포장센타 완공

용현 영농법인도 다른 법인처럼 포장센타 설치에 따른 부지 확보에 애로를 겪은 끝에 침수지역에 가까스로 부지를 마련하고, 1.5m를 성토하여 장마철에 대비했다. 성토작업 과정에서 계획보다 어려움이 많아 건축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했으나 조합원들의 포장센타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인 끝에 대망의 포장센타를 완공,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 갔다.

법인의 조직은 대표이사 1인을 비롯 상무, 총무이사 각 1인,

자연부락을 구성단위로 7개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1인의 이사를 두고 있다. 조합원 가입은 2백평 이상의 하우스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1회 정기월회를 계획하여 재배 및 시장동향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수급조절을 통해 높은 가격을 수취하고 있다.

전조합원가족 참가하는 수련회 등으로… 조합원의 단합 강화

용현 영농법인은 매년 5월 18일을 창립기념일로 정하고 여름에는 전조합원 가족이 참가하는 수련회를 갖는 등 자체 산악회도 결성, 여가선용과 체력향상을 도모하는 등 조합원간의 단합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토마토 품질향상을 위해 연3회 이상 자체적으로 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 단위의 토마토 교육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 선진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이와함께 매년 1회씩 토마토 출하시 조합원 부인들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견학시켜 시장상황과 농산물 거래동향을 일깨워 주어 품질 좋은 토마토 생산에 자신감을 심어 주기도 한다.

용현 영농법인 조합원들은 수확시 조합에서 공급한 간이 플라스틱 상자에 토마토를 담아 농가별로 포장센타까지 운반, 공동 선별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총 7백톤의 토마토를 선별 포장기로 하고 출하는 4년째 계속해서 지방 공판장 판매량 5%를 제외하고는 전량

서울 가락동시장에 출하하여 상인들과의 신뢰를 쌓고 타 출하처와 가격 차별화를 갖고 있다.

용현 영농법인은 지역 특성상 토마토의 재배를 축성재배하여 3, 4월 2개월에 80% 정도가 집중 출하되어 1일 1천5백 ~ 2천 박스씩 일정한 시간대에 선별하기 때문에 선과작업공정을 8라인으로 설치했다. 특히 공박스를 공급하여 수확토록 하고 선과시과일을 자동 투입시키는 등 모든 작업을 자동화하여 종전의 1/3 정도의 노동력으로 선별작업을 해 내고 있다.

한편 용현 영농법인은 이같이 토마토의 생산이 한 시기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선별 포장화하여 지역농업인들의 부가가치 제고와 함께 법인의 경영을 합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여 백

2.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임동농협 청과물종합유통시설



대표자	이 광 세 (☎: 0571 - 53 - 3754)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895				
완공년도	'94	조합원수	885명	출자총액	134백만원
취급품목	사과, 배, 양파		취급량	1,118 톤	
시설규모	부지: 1,601평, 건물: 532평, 선별기, 지게차 등				
투자비	1,250 백만원 (국고: 500 지방비: 200 자담: 550)				

◆ **임동사과 규격화 브랜드화 실현… 농가소득 증대**

◆ **당도 높고 색상 뛰어나 상품성 인정… 매년 수출물량 늘어나**

포장센터, 간이집하장 등 농산물 유통시설 운영활성화의 관건은 조합원들에 대한 시설 이용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창출에 있다.

안동 임동농업협동조합은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을 활용해 임동사과의 규격화 브랜드화를 실현함으로써 농가의 수취가격 향상에 기여, 모범적인 운영체로 인정받고 있다.

임동사과는 경북 안동지역이 임하담으로 수도작 중심의 농경지가 수몰되고 생활과 농산물 생산여건이 고지대로 이동됨에 따라 이러한 지역환경에 부합된 특산품목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임동조합은 지난 89년 고천리 등 3개 작목반으로 사과생산을 시작한 이래 현재 9개 사과작목반 2백11개 농가가 2백45ha를 경작해 연간 약 2천9백톤에 이르는 고품질의 임동사과를 생산하고 있다.

조합이 지역특산품화에 열의를 갖고 본격적인 과실생산에 나서자 농협에서도 사과나무 심기 홍보 및 재배지도를 실시했으며 매년 사과재배 전문교수 및 강사를 초빙해 재배 기술교육도 실시하였다. 또 매년 1회씩 작목 반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등 현지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재배기술 교육을 통한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으로 재배기술이 향상되어 상품성이 높은 우수한 품질의 과실을 생산할 수

있었다. 고품질의 임동사과는 현재 농협중앙회 공판장 및 법정 도매시장에 계통출하되고 있다.

조합의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은 대지 1천6백평에 국고보조를 포함 총 12억5천만원을 투자해 선과장, 저온저장고, 집하장, 개량 저장고 등의 시설로 지난 94년 10월에 완공됐다. 부대시설로는 선별기 1대를 비롯 파렛트 1천5백개, 운반상자 2만개, 지게차 등을 갖추고 있다.

선별기는 매해 10월부터 1백 51일간 가동되며 연간 1천1백20톤의 사과를 선별한다. 또 2백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는 비출하기인 6월을 제외하고 풀가동되며 연 3천6백40톤을 저장함으로써 수용 능력대비 91.8%의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조합은 90년부터 수출업체인 (주)태양실업과 계약해 대만으로 1백톤의 임동사과를 처녀수출했다. 특히 고산지에서 생산되는 당도가 높고 색상이 뛰어나 상품성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으면서 매년 수출량이 증가추세에 있다.

현재 농협무역, (주)태양교역, (주)경북통상 등의 수출회사를 확보하고 계약을 체결,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에 진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백14톤을 수출함으로써 4억5천만원 상당의 외화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한 정부비축 구매사업에도 참여해 지난해에 정부비축사과 3백25톤을 판매함으로써 4억2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와함께 농협 공판장을 통한 계통출하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규격 포장된 상품 4백80톤, 4억3천5백만원 규모를 판매했다.

이렇게 다양한 판매처를 상대로 매년 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총 1천1백18톤, 13억5백만원에 달하는 판매실적을 기록 했다.

조합의 매출 성장세는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운영 활성화로 가능했다. 조합은 작목반별로 당번제로 시설관리와 운영에 참여시켜 애착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시설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생산농가로부터 청과물 종합유통시설로 운반된 사과는 규격화, 브랜드화로 일반상인의 유통경로를 이용한 출하방식보다 가격이 높고 이용수수료 등 제반 비용 부담이 없어 농가의 수취가격이 높아졌다.

조합은 유통시설 이용자에 대한 실익 제공 차원에서 조합차량이 출하농가로 나갈 때 전일 수송분 거래명세서와 검수증을 교부하고 출하농업인은 본인들이 출하한 물건에 대해 수량과 금액 등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출하한 판매금액은 각 출하주의 예금 통장에 입금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 순회 수집판매로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농협이 책임짐으로써 농가수취 가격 제고 및 노동력 절감, 운송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조합은 사과 생산농가가 우선 개별 수작업으로 기형과, 병과를 1차로 선별한 물량을 자체 차량으로 순회 수집해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에 집하한다. 집하된 사과는 선별기를 이용해 크기, 무게, 색택별로 재선별한 후 2백 50g 이상의 상품은 수출용으로, 나머지는 내수용으로 각각 규격에 맞게 포장한다.

수출품의 선별작업은 10월말경부터 시작되며 일일평균 40여명 정도의 필요한 작업인력을 생산농가 부녀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연간 약 7천만원의 농외소득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 및 입출고료, 선별수수료, 저장보관료 등은 수출협회에서 가격정산 시 단가에 추가되고 있어 생산농가가 조합으로 상품을 출하한 후에는 별도의 추가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 상대적으로 수취 가격 상승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수출은 당년도 3월경 수출업체와 가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져 수출물량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가 드러나게 되고 8 ~ 9월에는 정식문서에 의한 수출계약이 체결된다.

출하기가 되면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에서 선별 포장된 상품이 수출가격으로 매취 선적되며 그 밖의 물량은 다음 선적시까지 수출업체로부터 보관료를 받고 저장고에 보관하게 된다.

조합은 수출품의 상품성 제고를 위해 8백만장의 봉지짜우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6백만장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며 나머지 2백만장은 농협에서 무이자로 외국산 봉지를 공급받고 있다.

조합은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켜 농민

조합원들의 권익보장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적극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농산물의 규격, 포장화로 상품성을 제고하고 공동선별, 출하로 작업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가격 교섭력까지 담보하는 길만이 개방화 시대에 살아 남는 첩경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리농협 청과물종합유통시설



대표자	이 상 목 (☎: 0582 - 31 - 0814)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892 - 10				
완공년도	'94	조합원수	1,401명	출자총액	158백만원
취급품목	사과, 배, 복숭아 등			취급량	3,027 톤
시설규모	부지: 2,553평, 건물: 537평, 선별기, 지게차				
투자비	1,092 백만원(국고: 500 지방비: 200 자담:392)				

작목반을 내부조직화... 취급물량 원활히 확보

“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의 성공여부는 원료농산물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청리농협 청과물종합유통시설 담당직원은 유통시설을 유치하고도 취급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들에 대해 이같이 조언한다.

청리 농협의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이 성공한 이유는 생산단계의 기본조직인·작목반을 내부조직화하여 취급물량을 원활히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청리농협의 이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은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거세게 밀려오던 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농업의 활로를 찾고자 다방면으로 고민하던 중 정부의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이 발표되자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청리농협은 그동안 산지에서의 농산물 유통구조가 왜곡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불이익을 보고 있음을 감안, 농산물에 대한 규격화, 포장화를 통해 상품성을 증대시켜 부가가치를 높여 생산농가에 환원해 준다는 것이다.

특히 농산물의 유통 관행개선을 도모하여 산지 수집상의 가격 횡포를 견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청과물 처리장의 중요성을 확인시킨 셈이다.

**상품성 높은 과실 엄격 선별, 수확기 출하조절로
가격지지기능 견지**

청리농협은 상주에서 김천방향으로 15km 외곽의 전형적인 농업지역에 위치하여 쌀외에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실재배가 주를 이루는 농촌조합으로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이 꼭 필요했던 곳이다.

현재 시설은 저온저장고 6동에 1백 55평을 비롯 선과장 1백50평, 집하장 2백평, 관리사 32평 등 기타 부지를 합하여 총 2천5백53평의 거대한 시설이다. 또한 선과기, 지게차, 팔레트 등 운반상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국고보조 5억원, 지방보조비 2억원, 국고융자금 2억원, 자부담 1억9천2백만원 등 10억9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단위 유통시설이다.

이같은 시설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시설내의 선별라인을 통해 상품성이 높은 과실을 엄격히 선별하고 수확기의 홍수출하를 방지하여 가격지지 기능을 견지함으로써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가격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중간상의 가격횡포를 최대한 견제한 가운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데 자리 매김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리농협의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은 소기의 정책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사과, 배외에도 양파를 수확한 후 조합원들로 부터 3백톤을 수탁받아 저장, 분산출하하므로써 가격 지지를 해주는 동시, 시설채소인 고추, 오이, 딸기 등의 집하, 포장장소로도 활용하여 말그대로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으로서 제기능을 특특히 해내고 있다. 또한 관내 작목반의 만남의 장소로도 시설물 일부를 제공해 주고 이들이 상호 정보교환 및 농산물 유통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른 사업체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다.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의 경제사업 전담 지소화

이같은 청리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은 '96년도에 농산물 검사소로 부터 포장비를 보조받아 출하한 표준규격 출하실적이 사과 1천6백62톤(17억7천2백만원), 복숭아 1백64톤(2억6천2백만원) 이외에 일반 포장 출하한 사과 6백46톤, 복숭아 55톤으로 27억2천4백만원의 출하실적을 올렸다.

이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선 청리농협의 경제사업은 본소와 떨어진 이 유통시설 내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유통시설의 경제사업 전담 지소화라 할 수 있는 이곳에서 농협의 농산물 유통관련 모든 업무가 처리되어 신속하고도 적절한 업무수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원들과의 밀착화에 일조토록 관리실내에 작목반대표 (일명 : 과우 회장) 책상을 마련해 주고 작목반원들이 수시로 이곳을 출입하며 직원들과 유대를 돈독히하며 작목반 상호간에도 각종 정보교환의 장소로 활용토록 하고 있는점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 담당직원이 작목반 관련 업무를 일괄처리해 주어 작목반원들이 느끼는 유통시설에 대한 소속감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것도 청리농협 유통시설 운영에 있어서 최대의 강점일 것이다. 또 수탁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유통시설 운영에서 각종 수수료율이 타 조합에 비해 저렴하며 공판장으로 출하한 부분에 대한 공판장 수수료 중 0.20%를 농민에게 환원해 준다는 면에서 농민의 수취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을 생산자 스스로 찾게 했다.

시설이용 생산자에 편익제공 위주 운영

다만 시설을 이용하는 생산자에게 플라스틱 상자 무료임대, 지게차이용, 무료입출고 등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판매 관련 순회수집 및 집하장 활용도 제고 등 많은 업무과정이 이용자의 편익제공 위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선별기의 활용실적이 다소 저조하여 이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선별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단계로서 대단위 선별물량의 확보가 관건이나 수탁위주의 현행 사업방식으로는 재배농가의 소규모 영세성에 비추어 한계가 있는 점도 넘어야 할 숙제이다.

이와함께 재배기술의 균등화를 통한 상품 품질의 균일화로 청리사과, 월곡복숭아와 같은 자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증대시켜 소비자가 알아주는 얼굴있는 상품으로 상품 이미지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예컨대 청리농협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은 산지유통시설로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운영에 성공은 했으나, 앞으로 선별기의 가동률 제고방안, 비수기의 시설물 활용도 증대방안 등을 해결한다면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여 백

3. 농산물 간이집하장

포천농협 농산물간이집하장



대표자	최재운 (☎: 0357 - 34 - 1909)				
소재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11 - 2				
지원년도	'95	조직원수	3,128명	이용농가수	1,547명
취급품목	무, 배추 등 11품목		취급량	11,518톤	
시설규모	부지: 2,881평, 건물: 150평, 지게차, 수송차				
투자비	39 백만원 (국고: 16 지방비: 16 자담: 7)				

**○소량 다품목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어
영세농가로 부터 호응도가 높다**

- 매잔품과 불량품을 전량 농협에서 인수해줘 못파는
걱정은 없어 ...
- 도매시장 출하보다 유통비용 절감되어 농가소득 증대
- 수도권 북부 소비도시지역 농산물 유통원활화 기대

급속한 도시화로 작은 규모의 근교농이 많은 지역 포천,
때문에 이 곳에는 소량 다품목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물론 지난 85년 자체적으로 건설한 공판장이 있지만 농산물
집하량이 갈수록 늘고 비가 올 때면 건물이 좁아 경매에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지난 96년 4월 이 곳 2천8백81평 부지에 농업인들의 소망이던
농산물간이집하장이 1백50평 규모로 건설되었다. 또 이 간이집하장은
기존의 공판장과 연계되어 있다. 사업비는 모두 3천9백만원,
국고와 지방비 합쳐 3천2백만원이 투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었
다. 이 곳에는 지게차와 수송차 등 시설장비도 구비되었다.

매일 아침 5시반부터 9시까지 현장경매를 실시하는 경매식
집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곳은 농산물의 성출하기인 매년 4월
20일에 개장, 12월20일까지 8개월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 곳에는 농협상무와 경매사 등 농협직원 14명이 상주하여 하차와 진열 등 경매의 전과정을 서비스하고 있어 지역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지난해 개장한 이후 8개월동안 오이, 호박, 고추 등 11개 품목 1만1천5백18톤의 농산물을 선별-포장, 자가용이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출하해 왔습니다. 특히 선별포장이 어려운 무, 배추, 열무 이외에는 규격포장상자에 담아 출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경매후 남거나 경락되지 않은 농산물은 농협에서 출하 농업인들을 위해 최소 보장가격으로 전량 매입, 자체수퍼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 포천농협 우용성 상무의 말이다.

그는 특히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주기 위해 철저한 품위검사를 실시하고 규격화된 제품만을 공급하여 항상 소비자의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매시간은 아침 5시반부터 9시까지이지만 출하된 농산물이 많을 경우, 경매시간을 연장하여 전량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당일 경매결과 판매대금은 수수료 7%를 공제한 뒤 당일 출하자의 통장에 입금된다.

현재 매매참가인으로 등록된 이들은 포천관내 상인과 인근 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도·소매인 등 모두 42명. 경락대금의 결재는 경매후 1개월 이내에 농협에 입금한다.

특히 경매기준 가격을 가락동 농협공판장의 경락가격과 중도매인 1차도매가격의 중간수준으로 결정하여 농민이 안정적인 가격에 출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도매시장 출하시 발생하는 수송비와 하차비 등 부대경비를 절감하고 있다.

포천농협 관내 포천읍과 군내면, 신북면, 창수면을 비롯, 영증면과 관인면, 일동면 등 2천여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현장경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천농협의 간이집하장은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 아니라 농협과 농업인간의 일체감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포천농협은 이같은 농업인들과 실질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농산물종합처리시설을 갖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11품목을 앞으로는 선별·포장이 가능한 품목들을 개발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포천농협 간이집하장은 경매시간이 새벽5시반으로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는 생산품목에 따라 차등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농업인들의 시간을 절약시켜 주기로 했다.

와야2리 고추작목반 농산물간이집하장



대표자	임광순 (☎: 0366 - 33 - 4888, 7834)				
소재지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2리 859번지				
지원년도	'94	조직원수	57명	이용농가수	67명
취급품목	고추,오이,감자 등 12품목			취급량	440 톤
시설규모	부지: 150평, 건물: 50평, 선별기, 저온저장고 등				
투자비	36 백만원 (국고: 14 지방비: 14 자담: 8)				

**○유기농법으로 고품질의 청정고추와 오이를
생산, 전량 공동출하**

- 환경농업 시범마을로 지정 및 품질인증 획득
- 오이 50톤을 일본, 홍콩에 수출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2리에는 지난 82년 10명의 농업인들이 힘을 모아 조직한 와야2리 고추작목반이 있다.

이같은 작목반이 결성되기 이전에는 와야2리에도 중간상인들에 의해서 헐값에 발매기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횡포가 극심했다. 이에 초대 작목반장 임홍섭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작목반을 결성, 상인들로 부터 횡포를 막고 농산물의 제값을 받자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오늘의 성숙된 작목반으로 성장했다.

현재에는 5개부락 57농가로 성장했으며 지난 94년부터는 정부 보조를 받아 농산물 간이집하장과 감자저장고, 저온창고 등 산지 유통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이 곳 마을은 원래 감자, 잡곡 등을 주작목으로 경작하는 전형적인 산간오지 농촌마을이었지만 80년대들어 비가림 하우스 풋고추 농사를 시작, 현재는 수박, 오이, 풋옥수수를 재배하는 시설단지로 변모했다.

최근에는 홍천군 농촌지도소로부터 「환경농업 시범마을」로 지정돼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청정농산물로 품질인증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94년 건설된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품질 높은 이 곳 농산물을 제값을 받도록 해 주고 있다. 1백50평부지에 50평규모의 집하장. 3천6백만원을 들인 이 집하장은 얼핏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선별기와 저온창고, 보냉차, 감자저장고 등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

이 작목반의 주작목은 고추와 오이, 감자. 부대작목으로는 느타리버섯과 수박, 풋옥수수, 피망, 호박 등 소량 다품목을 생산한다. 비수기 5~6월을 제외하고는 전량 집하장에서 작목반 소유의 5톤짜리 보냉차량으로 서울가락시장에 공동출하 하고있다.

당일 출하되는 농산물은 오전에 하우스에서 수확 - 선별 - 포장하여 정오까지 간이집하장으로 운반한다. 하지만 휴일이나 피서철에는 교통체증을 감안, 평소보다 1시간정도 일찍 집하한다.

임광순 작목반장은 「오늘의 작목반이 있기에는 반원들의 단합과 화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고 말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도매시장으로 출하할때 차량기사는 운전면허를 갖고있는 작목반원 가운데 순번제로 실시하며 작목반 공동기금에서 하루 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장 임광순씨는 또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결정은 최근 시세동향과 당일 물량을 점검하여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곳을 작목반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덧붙인다.

또 오이와 고추의 경우 성출하기나 장마시에는 집하장옆에 있는 20평규모의 저온창고를 이용하여 출하물량을 조절하고 있으며, 감자는 저장고에 저장후 단경기에 형상선별기로 선별하여 출하하고 있다.

특히 출하때 농가별로 받고 있는 운송수수료와 도매시장에서 출하농가에게 환원되는 출하장려금으로 작목반 공동기금을 조성, 작목반의 운영경비와 함께 정부 지원사업의 자부담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 간이집하장 설치전에는 마을입구 도로변에서 작목반원들이 만든 임시집하장에서 상차작업을 했지만 간이집하장 설치로 공동출하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 임씨는 다년간 축적된 재배기술로 일본, 홍콩에 와야2리 작목반의 오이 50톤을 수출하는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사명산 느타리작목반 농산물간이집하장



대표자	이정재 (☎: 0364 - 481 - 3422)				
소재지	강원도 양구군 남면 죽리 286 - 3				
지원년도	'94	조직원수	50명	이용농가수	150명
취급품목	느타리버섯, 오이 등 5품목			취급량	1,250톤
시설규모	부지: 120평, 건물: 50평, 저온창고				
투자비	35 백만원 (국고: 14 지방비: 14 자담: 7)				

○ 저온창고를 이용하여 간이집하장 활용도 제고

- 인근 농가도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작목반원 2명씩 순번제로 집하장에 출하관리

『 간이집하장 설치전에는 자체적으로 설치한 비나 겨우 가릴 정도의 소규모 임시집하장을 통해 출하, 수집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장마철에는 상품 질이 떨어져 애로를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에 의한 집하장 설치후에는 저온창고에 수확한 버섯을 일시 저장할 수 있어 어느정도 출하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명산 느타리작목반 반장 이정재씨는 느타리버섯 출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성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갖춘 간이 집하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명산 느타리작목반이 있는 강원도 양구군 남면 죽2리 부락은 주로 버섯사에만 매달리는 소득 낮은 마을이었다.

그러나 87년 젊은 영농후계자가 중심이 돼 느타리버섯 재배를 시작했고 그이듬해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10농가로 된 작목반을 결성했다. 현재는 참여 농가만 50농가에 버섯재배사도 70동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 94년 12월 3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1백20평의 부지에 50평짜리 간이집하장과 저온창고를 지었다. 이 시설들은 작목반원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시설채소 재배농가도 전기료 등 실비만 부담하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에게 개방, 시설 활용도를 높였다.

작목반에서 생산한 느타리버섯과 오이를 비롯 인근농가에서 생산된 호박, 옥수수, 감자를 비수기인 7 ~ 8월을 제외하고 가락시장 중앙청과와 동화청과에 출하하고 있다. 지난해 집하 - 출하 물량은 1천2백50톤.

출하절차는 당일 오전에 농가별로 수확 - 선별 - 포장 작업이 끝나면 오후 2시까지 집하장으로 모은다. 그러나 오이는 성출하기에 농협차량이 부락별로 순회수집을 하고있다.

특히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출하송장 작성 등을 위해 작목반중 2명씩을 순번제로 하여 집하장에 주재근무 시키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가격변동이 심한 느타리버섯을 일평균 3백박스를 저온창고에 저장, 제값받기에 한 몫을 했다.

지금은 사명산 느타리버섯이 유명세를 타고 있어 시장에서 알아주는 고유상표로 출하되고 있으며, 작목반 임직원들도 정기적으로 서울의 가락시장을 방문, 가격동향과 유통정보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정재 작목반장은 『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속박이 방지와 규격품 포장상태 순회점검, 자율적인 검사 작업 등이 사명산 느타리버섯의 신용도와 값어치를 높이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고 자랑한다.

탄금대 작목반 농산물간이집하장



대표자	서용교 (☎: 0441 - 42 - 228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09 - 17				
지원년도	'94	조직원수	20명	이용농가수	30명
취급품목	시금치, 상추 등 6품목			취급량	1,527톤
시설규모	부지: 273평, 건물: 50평, 수송차량				
투자비	87 백만원 (국고: 35 지방비: 35 자담: 17)				

○ 직판물량에 대하여 공동계산제 실시

- 집하장에서 생산량의 60%를 직판

충주시 외곽에는 남한강을 끼고 있는 탄금대라는 곳이 있다. 이 곳은 조선시대 신립장군이 왜군과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이 탄금대가 있는 충주시 칠금동에 지난 72년 작목반이 결성됐다. 월동시금치를 주로 재배하는 이 곳 농업인들이 중간상인들의 횡포를 막기위해 결성한 공동출하 목적의 작목반이다.

그 후 79년에는 시설재배를 시작, 현재에는 비가림 단동하우스가 3백동이나 들어선 대규모 단지가 됐다.

작목반에서 연 3기작으로 생산된 상추와 오이, 쪽갓의 40%는 서울가락시장과 대전공판장, 원주공판장, 충주도매시장 등으로 공동출하 되고 나머지 60%는 매일 오전 간이집하장에서 인근 원주와 제천, 청주, 대전지역의 도·소매상에게 직판하고 있으며 판매가격은 인근 3개작목반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난 94년 8천7백만원으로 2백73평 부지에 50평 규모의 간이집하장이 설치되기 전에는 마을회관 공터에서 수송차량에 상차하여 우천시 작업이 곤란하였고 농가별 선별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어 규격 상품화가 곤란하였으나 이제 간이집하장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시설물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 되었다.

『 우리 탄금대 작목반은 결성된 역사가 길고 조직원간의 결속력이 높아 당일 직관되는 농산물은 출하물량에 따라 대금을 공동으로 배분하는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작목반장 서용교씨의 말대로 매년 1월에 개최되는 총회에서는 결산과 임원선출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 짓고,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월례회의에서는 농산물검사소와 농협 직원까지 초청하여 참여시킨 가운데 규격출하와 포장개선 등 공동출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재배기술 향상과 반원 단합을 위해 경북 성주와 전남 구례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곳의 농산물 출하절차는 이렇다. 먼저 매일 작목반에서 10시까지 작업량을 신청하면 반장과 총무가 가격정보를 감안, 직관할 물량과 도매시장 출하량을 결정한다. 또 출하되는 상품들은 자체 기준에 맞춰 선별, 규격박스에 담는다. 그러나 상차작업 전에 반드시 농산물검사소의 자율검사원으로 위촉받은 반장과 총무가 내용을 검사해야 출하할 수 있다. 출하 직전까지도 철저한 품질검사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게 간이집하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작목반장 서용교씨는 『 간이집하장 설치후 조직이 활성화돼 도매시장 출하장려금(1%)과 직관수수료(5%), 공동구매수익금 등이 매달 적립돼 지금은 공동기금만 1천5백만원을 모았다 』며 은근히 자랑한다.

하용두 작목반 농산물간이집하장



대표자	김인승 (☎: 0441 - 853 - 6085)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용두동 340 - 6				
지원년도	'94	조직원수	26명	이용농가수	66명
취급품목	방울토마토, 오이, 상추		취급량	740 톤	
시설규모	부지: 110평, 건물:50평, 선별기				
투자비	35 백만원 (국고: 14 지방비: 14 자담: 7)				

**○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은 방울토마토를 생산
하여 롯데백화점 등에 납품**

- 대형유통업체 출하분에 대하여 공동계산제 실시
- 충청북도 제1호 품질인증 획득
- '93년 우수작목반 대상 수상

충주시 용두동은 전통적인 쌀농사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80년초부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오이를 주작목으로 선정, 시설재배를 시작했다.

오이재배가 시작될 당시에는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유사시장과 수집상들에게 출하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데다가 상인들의 횡포가 심해 제값을 받는 예가 거의 없었다.

이같이 개별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오이 농가들은 지난 80년 11월 동네 마을회관에서 작목반 결성을 위한 모임을 갖게 됐다. 이때에 농가의 전폭적인 지지로 결성된 작목반의 이름은 동네이름을 따 하용두작목반으로 정해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작목반 결성이후 작목반원은 생기가 돌아나듯 오이재배에 열성을 보인 끝에 재배농가와 면적이 갈수록 늘어나 현재에는 26농가에 시설하우스도 1백50동으로 급성장 했다.

이 때문에 「 지성이면 감천 」이라는 말이 실감나듯이 지난 93년에는 농협중앙회로 부터 작목반 상중에 가장 큰 우수작목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곳은 대상 수상보다도 더 유명한 것이 있다. 지난 82년 오이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충북농촌진흥원장의 소개로 일본으로 부터 방울토마토 종자 2봉지를 입수해 왔다. 그 후 2백평의 하우스에 시범재배를 하여 이듬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방울토마토를 도매시장에 선 보인 것이다. 또 이 방울토마토는 농산물검사소로 부터 충북의 제1호 품질인증품이 되었다.

이제 하용두작목반은 연간 740톤의 방울토마토와 오이, 상추가 생산되고 있다. 그러기에 간이집하장 시설은 필수적이었다.

지난 94년 3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 1백10평, 건물 50평규모의 간이집하장을 세우게 됐다.

『 농가별로 오전에 수확한 방울토마토는 간이집하장과 농가에 설치된 선별기로 포장하여 오후 7시까지 집하해야 합니다. 또 간이집하장에서 출하처별로 서울가락시장과 영등포농협공판장, 충주도매시장, 한화유통, 롯데백화점 등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

작목반장 김인승씨는 전화와 팩스로 수집한 가격정보와 출하량을 감안, 반원들과 출하처를 협의하며 유통업체에 출하하는 물량은 농가별 한도량을 정해 자신이 직접 배분해 준다.

이런 노력으로 이 곳에서 생산되는 방울토마토는 당도가 높고 선별이 잘돼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6년전부터는 서울 한화유통과 롯데백화점에 납품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작목반 명의로 공동출하 하고 판매대금은 공동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작목반장 김씨는 『 종전에는 농협창고와 주유소공터를 이용, 상차하면서 시간이 짧아 선별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간이집하장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공동선별기를 이용한 규격출하와 공동계산이 가능해졌다」며 정부의 지원을 고마워 한다.

김씨는 또 최근에는 출하장려금과 운송수수료, 농자재 공동구매로 인한 이익금을 꾸준히 적립, 이 돈으로 반원들에게 휴대전화기를 구입해 주는 등 반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는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여기에 농촌지도소와 농협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농기술 교육에 반원들을 참석시켜 선진기술을 습득케하여 우수한 품질을 지켜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탄부농협 농산물간이집하장



대표자	이상구 (☎: 0433 - 42 - 7890 ~ 1)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371 - 1				
지원년도	'95	조직원수	918명	이용농가수	80명
취급품목	오이, 방울토마토, 고추 등			취급량	320 톤
시설규모	부지: 448평, 건물: 100평, 저온창고, 수송차량				
투자비	120 백만원 (국고: 27 지방비: 27 자담: 66)				

**○간이집하장 앞에 작목반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활성화 도모**

- 도매시장 경락가격 등 유통정보를 신속히 제공
- 회의용 집기, FAX, PC 등을 무상지원

충북 보은군 탄부면의 탄부농협에는 지난 95년 간이집하장이라고 보기에에는 큰 부지 4백48평, 건물 1백평 규모의 농산물 집하장이 있다. 사업비도 1억2천만원. 저온창고와 수송차량도 갖춘 간이집하장이다.

이 곳에 이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지난 94년 정부로부터 2만평 규모의 첨단농업 시설단지사업과 1만5천평 규모의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을 지원 받으면서 부터였다. 전통적인 쌀 재배 마을이 시설채소단지로 변모한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쌀농사만을 고집해오던 이지역 농업인들이 타지역보다 소득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터 오이, 고추 등 시설채소를 재배해야 한다는 여론과 현실이 일치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이집하장이 성공하기에는 무엇 보다도 지역 농업인들이 하고자하는 의욕이 충만한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현재 집하장을 이용하고 있는 농산물은 방울토마토와 오이, 고추 등 연간 3백40톤을 처리하여 주로 대전 농협공판장에 출하되고 있다.

특히 간이집하장 앞에는 컨테이너식 사무실을 설치하여 이곳에 사무집기와 팩스, 컴퓨터 등을 갖춰 놓고 작목반원 회의장소와 유통정보수집, 화물차량 기사대기실 등 다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들에게 간이집하장의 주인의식을 심어주어 이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항상 집하장 운영에 적극성을 갖게 함으로써 활성화 될 수 있게 되었다.

『 저희는 재배기술 향상과 규격출하를 위해 비수기인 12월에는 공주와 부여, 논산 등 시설재배 선진지를 견학하기도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시 농협에 배치된 전담 지도사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 이상구 탄부농협조합장의 말처럼 이곳은 출하자와 농협간의 유대감이 남 다르다.

이상구 조합장은 이렇게 되다보니 간이집하장이 출하농업인들이 주인인지 농협이 주인인지 모르게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집하장 운영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어 타 지역 보다 먼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먼저 도매시장에서 팩스로 통보된 경락가격을 다음날 아침 9시에 출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실에 게시해 놓는다.

또 출하처 결정은 전화나 PC통신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경락가격을 감안, 농협과 출하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작목반원들도 종전에는 농협사무실 앞 도로에서 상차작업을 하느라 도난사고를 당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럴 염려가 없다.

특히 성수기 출하로 가격폭락이 우려될 때에는 저온창고에 일시 저장하여 가격이 회복된 다음 출하하면 생산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비수기에는 포장자재와 각종 농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대성 오이작목반 농산물간이집하장



대표자	이상수 (☎: 0416 - 53 - 6483)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 277 - 7				
지원년도	'94	조직원수	17명	이용농가수	17명
취급품목	오이			취급량	2,050 톤
시설규모	부지: 300평, 건물: 60평, 박스결속기				
투자비	39 백만원 (국고: 16 지방비: 16 자담: 7)				

○ 고품질의 다다기오이를 연3기작 생산, 공동출하

- 재배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장소
- 품질향상을 위한 자체 평가대회 개최

충남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에는 17농가가 참여하는 작은 오이 작목반이 있다. 지난 90년에 조직되어 기간도 짧은 편이지만 이 작목반에는 자랑거리가 있다.

전통적인 쌀 재배 마을로 소득도 그리 높지 않았던 이 마을이 지난 88년 시작된 다다기오이 시설재배로 잘 사는 마을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작목반 결성후 지난 95년 3월 시설단지내에 완공된 간이 집하장이 시설하우스 84동에서 출하되는 다다기오이의 공동출하를 돕고 있는 것이다.

3천9백만원 사업비로 3백평부지에, 60평 건물이 들어선 간이집하장에는 박스결속기도 갖추고 있다.

때문에 작목반장 이상수씨는 『 우리 작목반에서 생산된 시설 재배 다다기오이는 타지역 농가들이 영농교육을 목적으로 찾아와 재배기술을 배워갈 정도로 오이 품질이 좋고 뛰어나다 』고 자랑한다.

이 작목반에는 특이한 것이 있다. 하우스 비닐피복이나 종자 파종 작업은 출하계획에 따라 작목반원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수확기에는 인근의 청양지역에서 부녀자를 모집,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농자재도 인근 부락 5개 작목반 연합회와 공동으로 구매하는 등 이웃마을과 연계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특히 오이 출하가 끝나는 5월말에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도 가고 품질향상을 위한 자체 평가대회도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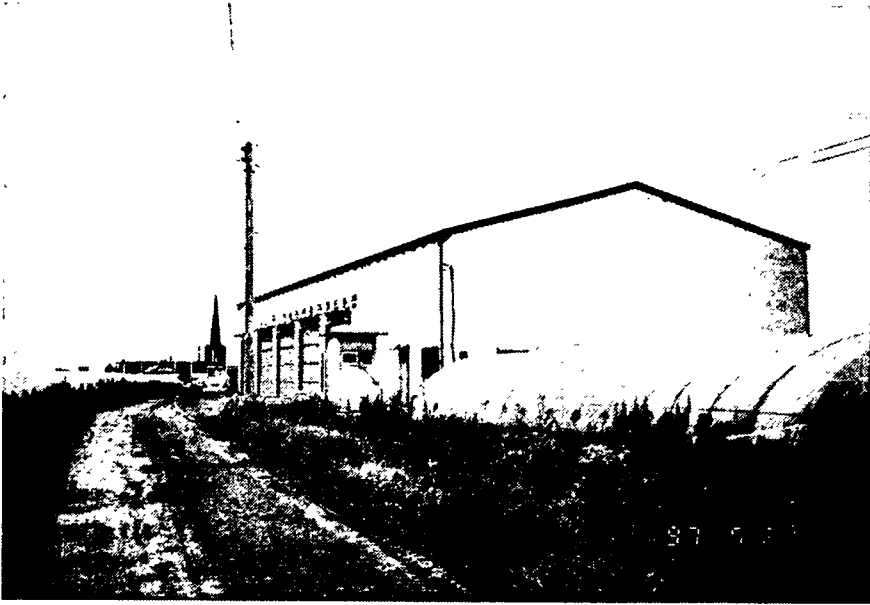
연 3기작으로 생산되는 다다기오이는 비수기인 5 ~ 7월 이외에 전량 집하장을 통하여 하루 5백상자를 가락시장 농협공판장에 출하하며 여름에 생산되는 하우스 가시오이는 횃집과 원양어선 선식용으로 부산지역 도매시장에 출하된다.

『 출하되는 오이는 농가별로 수확후 3등급으로 선별, 표준 규격상자에 포장하여 집하하며 포장시에는 반드시 반장과 총무가 하우스를 직접 방문, 포장상태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상수 작목반장은 특히 『 간이집하장이 설치된 이후 작목반원들이 겪었던 상차작업의 어려움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운송수수료 차액과 포장박스 보조비 등을 공동기금으로 마련해 지금은 2천여만원 정도를 모았다 』고 말한다.

게다가 매주 한 번씩은 가락시장을 찾아가 다른 지역의 오이와 품질을 비교해보고 가끔은 부부동반으로 가락시장을 찾아 정보도 듣고 서울나들이도 떠난다고 한다.

예당 영농조합 농산물간이집하장



대표자	김 용 운 (☎: 0458 - 35 - 5423)				
소재지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월리 312 - 1				
지원년도	'94	조직원수	64명	이용농가수	104명
취급품목	대파,상추,시금치등 8품목			취급량	2,100 톤
시설규모	부지: 304평, 건물: 150평				
투자비	33 백만원 (국고: 13 지방비: 13 자담: 7)				

○ 집하장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영농조합으로 전환

- 인근지역 40농가 준조합원으로 가입
- '94년에 지역특산품인 대파50톤을 일본에 수출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월리. 이 곳은 옛부터 쌀농사로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경지정리로 주변이 밭으로 전환되면서 지금은 사질양토에 적합한 대파, 수박, 시금치, 상추 등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하우스가 1천1백동이나 들어설 정도로 변모했다.

이 곳이 이처럼 변한 것은 지난 80년 시설상추 신원 작목반이 결성 되므로서 비롯되었다.

또 지난 94년에는 3천3백만원을 들여 간이집하장을 건설했다. 3백4평 부지에 1백50평 규모의 집하장은 1년에 2천8백30톤의 농산물을 가락시장 등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작목반은 농산물의 출하단위를 규모화하고 공동출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영농조합으로 진일보 발전했다.

『연중 3기작으로 생산되는 대파와 상추 등은 전량 집하장을 통해 가락동도매시장 한국청과와 수원 농협공판장, 천안 농협공판장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또 출하되는 상추와 시금치 등은 농가별로 수확, 3등급으로 선별, 규격상자에 담아 출하되는데 집하장에서 농산물검사소 자율검사원인 이하영씨가 최종적으로 철저히 검사하기 때문에 품질에 관련한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대표 김용운씨는 이어 『사질토양에서 재배되는 대파는 잎이 연하고 맛이 좋아 94년도에 일본에 50톤을 수출할 정도로 품질이 우수하여 도매시장 상인들로 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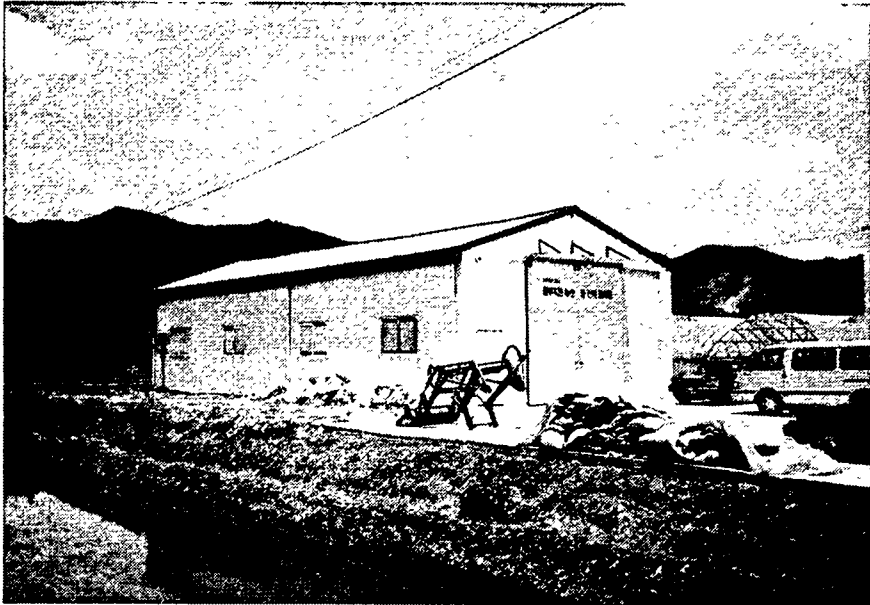
김씨는 영농조합원 관리를 위해 매년 2월에 정기총회를 열어 결산과 임원선출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월 열리는 임시회의에서는 출하시기와 작목선정 등 영농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64농가에서 생산하는 대파, 수박, 상추 이외에 인근지역에서 생산하는 열무, 알타리무, 당근, 시금치를 생산하는 40농가를 준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집하장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간이집하장 설치후 상차시간이 줄어들고, 수박의 경우에는 포전거래 비율이 30%로 감소하고 공동출하량이 늘었으며, 비수기에는 영농자재 보관 등 다목적으로 집하장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김용운 영농조합대표는 『간이집하장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간이집하장 시설장비구입자금을 지원받아 가격 등락이 심한 수박의 일시저장을 위한 30평 규모의 저온저장 시설과 지게차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힌다.

청웅 시설원예영농조합 농산물간이집하장



대표자	박종철 (☎: 0673 - 43 - 4536)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148 - 9				
지원년도	'94	조직원수	20명	이용농가수	50명
취급품목	오이, 토마토, 풋고추 등			취급량	1,200 톤
시설규모	부지: 100평, 건물: 60평, 저온창고				
투자비	38 백만원 (국고: 15 지방비: 15 자담: 8)				

○ 고품질의 오이와 토마토를 계획생산하여 공동 출하

- '95 ~ '96년에 오이260톤 일본에 수출
- 전주농협의 세계화농업지도자 교육장으로 지정

「 몇 년전 까지만 해도 비좁은 비가림 임시집하장을 통해 출하되는 바람에 집하시간이 짧아 품질검사를 할 시간도 없었지만 이제는 출하 농산물의 규격상품화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 박종철 청웅 시설원에 영농조합장 말처럼 이 곳은 간이집하장을 통한 공동출하가 활발하다.

이는 지난 94년 3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1백평 대지에 60평짜리 간이집하장이 생긴 덕분이다.

영농조합이 있는 전북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는 원래 전통적인 벼농사 지역이었지만 소규모 비가림시설로 오이를 재배하기 시작하여, 93년에는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과 수출농업단지사업, 첨단농업시범마을 육성사업 등 현대화된 연동식 시설하우스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1만3천5백평)대규모 생산단지가 조성됐다.

또 94년 9월에는 대도시에서 귀향한 젊은 농군 10여명을 주축으로 시설단지로 이주, 기존의 작목반을 해체하고 20농가의 출자금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영농조합이 세운 간이집하장은 특히 조합원이 생산하는 주작목인 토마토와 오이뿐 아니라 풋고추와 방울토마토 등을 생산하는 인근 30농가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오이, 토마토 등 1천50톤을 공동출하했으며 운송료와 공동구매사업 수익, 도매시장에서 출하농가에 환원하는 수수료 등 조합자체 수익으로 경리직원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전액 충당하고 2천5백만원의 흑자경영을 시현했다.

이같이 짧은 기간에 청웅 시설원에 영농조합이 성공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이 뚝뚝뚝 나국을 헤쳐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부에 유통지원사업, 수출농업단지사업 등으로 어려운 자금난을 덜어 준것도 성공에 큰 힘이 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집하장은 전주농협 세계화농업지도자 교육원의 현지교육장으로 지정, 일주일에 약4백명 정도의 농업관련 교육생이 방문하는 선진농업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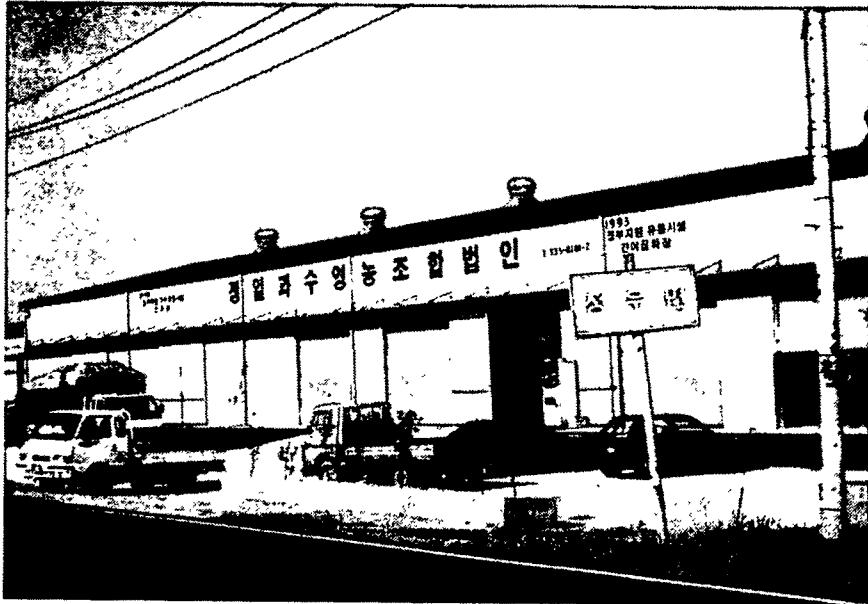
이 같은 청웅 시설원에 영농조합의 농산물 집하는 다른 곳과 다르다. 2기작으로 생산 출하되는 오이와 토마토는 집하장에서 자체적으로 전주원협 공판장과 전주의 후계자직판장 등으로 출하되며 성출하기에는 지역화물차량을 임차하여 출하한다.

영농조합 박종철 대표는 「 우리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 시설재배 기술이 뛰어나 95년과 96년에 저온창고(10평)를 이용,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고품질의 오이 2백60톤을 일본에 수출하기도 했다 」 며 자랑스러워 한다.

박씨의 말대로 조합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는 지역특성상 일교차가 커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좋아 농산물검사소 품질인증품으로 지정받았다.

또 정기적으로 공관장을 방문, 타지역의 농산물과 상품성, 포장 디자인, 가격 등을 비교하여 자신들의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정일 과수영농조합 농산물간이집하장



대표자	김재한 (☎: 0681 - 535 - 8101)				
소재지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한교리 1743번지				
지원년도	'95	조직원수	110명	이용농가수	170명
취급품목	사과, 배		취급량	1,320 톤	
시설규모	부지:1,150평, 건물:200평, 저온창고, 지게차 등				
투자비	160 백만원 (국고: 58 지방비: 58 자담: 44)				

○ 효율적인 조합운영으로 흑자경영 실현

- '95 ~ '96 수출황금배 386톤 선별
- 농약구입비율 연간 50백만원 절감

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리 마을입구에 들어서면 1천1백여평 부지에 2백평 규모의 커다란 간이집하장을 만날 수 있다.

1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한 간이집하장에는 선과장, 저온창고, 수송차량, 지게차, 선과기 등이 들어서 있다.

정일 과수영농조합이 지은 이 집하장에서는 이 곳 북면에서 연간 생산되는 3천5백40톤의 엄청난 물량의 사과와 배 가운데 1천3백20톤의 물량을 출하하고 있다.

『 농가에서 수확한 사과는 예조과정을 거친 뒤 조합원이 출하를 희망하는 시기에 조합차량을 활용, 플라스틱 컨테이너 박스에 담은 사과를 집하장까지 순회수집하고, 선과장에서 봉지와 꼭지 제거작업을 벌인 뒤 선과기로 선별하여 오후 7시 ~ 8시 사이에 도매시장으로 출하합니다. 또 출하처는 조합에서 PC통신(천리안)과 전화 등으로 조사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농가 스스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곳 영농조합 대표 김재한씨의 설명대로 성출하기에 가격 하락이 우려될 때에는 저온창고에 희망하는 물량만큼 신청받아 저장하고, 남은 물량이 생길 때에는 인근 원예협동조합 창고를 빌려 저장시키고 있다.

특히 집하되는 사과는 선과기에 의해 개수별로 선별, 원예 협동조합과 정읍시로 부터 디자인 개발비를 보조받아 자체 개발한 규격상자에 10kg씩 담아 정일 과수영농조합법인 고유상표로 출하되고 있다.

전주, 익산, 광주, 목포 등 지방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이 곳의 사과는 정부의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저온창고(1백평)와 대형선과기(하루15톤 선과능력)가 집하장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 영농조합은 20년전에 조직된 정읍시 과수농가들의 모임, 「금송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52농가가 출자금 6천7백만원을 조성, 94년 11월에 설립등기를 마쳤다. 현재에는 조합원수가 1백10농가, 출자금은 3억5천만원으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 95년과 96년에는 세계적인 과일수출국인 캐나다와 하와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황금배 3백86톤을 선별하는 등 부대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 재배기술 및 품질향상을 위해 조합에서 농진청의 박사 등 각계 전문가를 초빙, 일년에 3 ~ 4차례씩 과수 비배관리와 농약 처리 방법, 병충해방제 등 필요한 영농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김재한 조합대표는 지난해 선과수수료와 저장수수료 등 부대 사업을 통해 관리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전액 충당하고 4천5백만원의 수익을 실현하여 조합원들에게 1천5백만원을 배당한 것을 보람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

보성 미니토마토영농조합 농산물 간이집하장



대표자	임삼옥 (☎: 0694 - 857 - 8545)				
소재지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신월리 439 - 1				
지원년도	'94	직원원수	52명	이용농가수	112명
취급품목	방울토마토		취급량	430 톤	
시설규모	부지:1,200평, 건물:60평, 선과장,저온창고,선별기,포장기				
투자비	41 백만원 (국고: 15 지방비: 15 자담: 11)				

○ 조합원이 생산한 방울토마토 70%를 공동으로 선별하여 대구 동아백화점에 납품

- 품질을 인정받아 출하가격은 조합 요구 가격으로 결정
- 출하대금을 공동계산제
- 방울토마토 재배단지로 지정

전남 보성군 조성면 신월리에 있는 보성 미니토마토영농조합은 이 곳 8개부락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지난 91년에 조직한 작목반을 모태로 올해 3월에 정부에서 지원한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영농조합으로 전환했다.

조합원이 연중 2기작으로 생산한 방울토마토는 품질을 인정받아 3년전부터 대구 동아백화점과 직거래하고 있을 정도로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가별로 하우스에서 선별, 포장하여 농협공터에서 수송차량에 상차, 출하했지만 농가별로 선별상태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선별이 문제였다.

그러나 지난 94년부터, 1천2백평 부지에 건설된 간이집하장(60평)과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선과장(50평), 그리고 저온창고(30평), 선별기(3대)등을 이용해 공동선별 - 출하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덕분에 지난해 1월과 2월 사이에는 도비를 지원받아 구입한 수출용 소포장기를 이용, 일본에 방울토마토 50톤을 수출했다.

『매년 작물 파종때와 수확기에 일손이 모자랄 경우 마을단위로 지구위원 책임아래 농가 자가인력을 동원, 품앗이를 실시하며 수출용 선별과 유통업체 납품때에는 조합원이 작업조를 편성, 공동선별하여 출하대금은 공동계산제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임삼옥 영농조합대표는 또 지난해 8월 일주일간 30명의 조합원을 일본 큐우슈의 오이타 지역 시설채소단지와 청과도매 시장 등을 돌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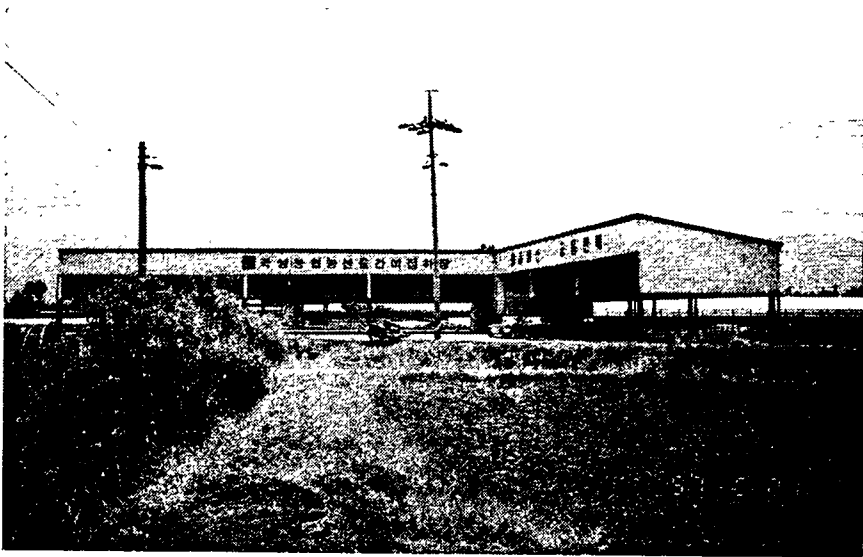
간이집하장 설치 이후에 농산물 출하절차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먼저 농가별로 오전에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플라스틱 컨테이너 박스에 담아 당일 선별작업 순서를 따라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가별로 간이집하장까지 수송하면 조합원이 공동으로 선별, 대구 동아백화점(70%)과 부산항도청과(30%)에 출하한다. 그러나 차량단위로 수송이 곤란한 비수기에는 여수, 순천 등 인근 도시로 개별출하하고 있다.

특히 영농조합은 PC통신이나 팩스로 수집한 가격정보와 당일 동아백화점의 주문량을 감안하여, 농가별 출하처를 결정하며 납품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인근 작목반에서 수집, 요구하는 품질과 물량을 항상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어 조합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영농조합대표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 이 곳에서 생산된 방울 토마토가 3년전 KBS 6시내고향이란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품질을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동아백화점에 납품을 계속한 결과 금년에 “방울토마토 재배단지”로 지정되었으며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합에서 요구하는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출하 판매할 수 있어서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 고 자부심이 대단하다.

곡성농협 농산물간이집하장



대표자	서근호 (☎: 0688 - 63 - 3614 ~ 8)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대평리 1131 - 1				
지원년도	'94	조직원수	535명	이용농가수	2,000명
취급품목	딸기,옥수수,메론 등			취급량	12,819 톤
시설규모	부지: 618평, 건물:150평, 선별기, 수송차량				
투자비	129백만원 (국고: 49 지방비: 49 자담: 31)				

○농협과 농민들과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호응도가 높다

- 작목반 활성화를 위하여 작목반연합회 운영
- 농작업상해공제보험료 및 딸기 품질보증스티카 제작, 농촌일손돕기 인력 알선 등 환원사업 활발히 추진
- 출하시 직원이 상주 재포장, 유통정보제공 등 수행

전남 곡성군 곡성읍 대평리 곡성농협의 관내에는 곡성읍, 삼기면, 고달면, 오곡면, 죽곡면, 남원시 금지면, 수지면의 19개 작목반 5백35농가에서 생산하는 딸기와 옥수수, 메론 등의 농산물을 공동출하하기 위해 시설원예단지 중앙에 부지 6백18평규모에 150평의 간이집하장이 들어서 있다. 지난 95년 7월 터미널식으로 완공된 이 집하장은 1억2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었다. 또 선별기와 수송차량까지 갖추고 있다.

『지난해 이 간이집하장을 통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계통출하된 실적은 딸기, 옥수수, 메론, 감자 등 1만2천8백여톤, 금액으로는 85억원으로 매년 물량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근호 조합장은 작목반 조직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집하장 사무실내에 작목반연합회를 운영하며 월1회 정기적으로 작목반장과 총무가 참석하는 월례회의를 개최, 가격동향과 규격출하 등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농협과 생산농민과의 단합을 위해 농작업상해공제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제료지원과 딸기품질보증 스티커제작 무상공급, 일손돕기 인력알선, 작목반장 수당지급 등 환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당일 출하되는 딸기, 메론, 옥수수는 농가에서 선별과 포장작업후 90년부터 마을별로 설치한 20 ~ 50평 규모의 비가림 임시집하장에 오후 1시까지 농가별로 집하를 실시한다.

또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농협에서 용차한 대형화물 차량으로 마을별로 순회 수집하여 오후 6시반에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공판장과 도매시장에 연중 계통출하한다.

특히 집하장에는 농협직원과 운송회사 직원이 상주,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출하지도와 소량출하 농산물에 대한 재포장 작업을 실시하는 등 출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선별 - 규격상품화를 위해 당일 출하되는 딸기, 메론, 감자 등은 농가별로 수확, 3등급으로 선별하여 곡성농협 표준규격상자에 포장하여 집하하며 상차전에 작목반별로 농검 위촉 자율검사원 2명이 규격과 포장상태를 검사하고 있다.

서 조합장은 「사질토에서 생산되는 곡성딸기는 당도가 높고 보관성이 우수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공판장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10%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임시집하장을 통해 출하돼 박스 운송단가가 상승했지만 지금은 체계적인 출하작업과 출하농산물간 상호비교를 통해 규격상품화가 용이해졌다.

조성 시설원예작목반 농산물 간이집하장



대표자	임 현 배 (☎: 0694 - 857 - 6629)				
소재지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귀산리 420				
지원년도	'94	조직원수	120명	이용농가수	120명
취급품목	방울토마토, 오이		취급량	1,160 톤	
시설규모	부지: 724평, 건물:100평, 선별기, 수송차량				
투자비	87 백만원 (국고: 35 지방비: 35 자담: 17)				

○작목반 결성이 15년, 작목반원간의 결속력이 높다

- 공동기금으로 자체사무실을 마련 농자재 공동구매 및 유통정보제공
- 작년 8월 결산시 이익배당 실시

전남 보성군 조성면 귀산리에 자리잡고 있는 농산물 간이 집하장은 7백24평의 부지에 1백평 규모로 건설됐다. 8천7백만원을 들여 선별기와 수송차량까지 갖춘 집하장은 농산물 공동출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곳은 83년부터 딸기의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토마토를 소득 작목으로 선정,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대규모 단지로 변모했다.

그 후 보성군 농촌지도자 협의회장인 임현배씨(현 작목반장)를 중심으로 87년부터 방울토마토로 작목을 전환, 지금은 8개부락 1백30농가로 조직수가 늘었다.

당일 출하되는 방울토마토는 오전에 간이집하장내에 설치된 형상선별기로 선별·포장되어 출하되며, 오이는 농가별로 선별하여 작목반 차량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마을별로 순회 수집한다.

또 지난해에는 작목반에서 생산한 방울토마토와 오이를 서울 가락동 한국청과와 동화청과 등에 공동출하했다. 특히 지난해 1 ~ 2월에는 작목반에서 생산한 오이 43톤을 수출업체인 남양 농산을 통해 일본에 수출하기도 했다.

작목반 역사도 15년이상되다보니 작목반원간의 결속력이 높아 공동기금으로 면소재지에 자체 사무실을 마련, 작목반원이 필요로 하는 농자재 공동구입과 유통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할 때는 마을 단위로 작목반원이 순번을 정해 품앗이를 하며 수확기에는 농가별로 자가인력과 보성읍에서 인력을 모집, 일당제로 고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 조합원 관리를 위해 작목반에서 영농에 필요한 비닐, 농약, 포장상자 등을 공동구매하여 외상으로 작목반원들에게 우선 공급 후 출하대금 정산시 공제하고 있으며 지난해 결산때에는 작목반 이익금 가운데 일부를 출하물량 단위로 박스당 3백원씩으로 계산하여 모두 5천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출하되는 방울토마토와 오이는 자체기준에 맞춰 선별하여 규격박스에 담아 마을별로 자율검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목반장의 말대로 이런 품질관리로 보성군 조성면의 방울토마토는 특유의 맛과 당도가 8 ~ 9도로 높아 도매시장 상인들이 많이 찾는다.

그래서 조합에서 장기간 임차한 11톤 냉장차에 출하처별로 적재하여 오후 2시가 되면 어김없이 서울 가락시장과 영등포시장, 부산의 개인상회로 조성면의 방울토마토와 오이가 실려나간다.

화리 과수작목반 농산물간이집하장



대표자	박태식 (☎: 0542 - 72 - 2191)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화리 353 - 1				
지원년도	'94	조직원수	58명	이용농가수	58명
취급품목	복숭아, 감, 사과		취급량	435 톤	
시설규모	부지: 216평, 건물: 60평, 선별기, 결속기				
투자비	40백만원 (국고: 16 지방비: 16 자담: 8)				

○청도군 작목반중 최우수 출하조직으로 선정

- 규격상품화가 잘되어 도매시장에서 인기

화리 과수작목반은 지난 82년 5월 경북 청도군 각남면 화리에서 복숭아를 경작하는 49농가를 중심으로 공동수확 - 출하를 목적으로 결성됐다. 지금은 인근의 감과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까지 가입돼 58농가로 늘었다.

95년 1월에 간이집하장을 완공하여 중량선별기와 박스결속기를 설치, 간이집하장으로 집하된 복숭아를 공동선별 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를 농산물검사소로부터 품질인증품으로 지정받아 「화리복숭아」 고유의 상표로 출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화리작목반 17만평 과수원에서 생산된 복숭아와 감, 사과 등 4백35톤을 가락동도매시장의 한국청과와 부산엄궁동도매시장 농협공판장으로 공동출하 하기도 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12월과 1월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며, 년초에는 작목반 임원진이 대도시 도매시장을 직접방문, 가격과 유통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총회에서 출하처를 정하고 출하약정을 체결하는데 활용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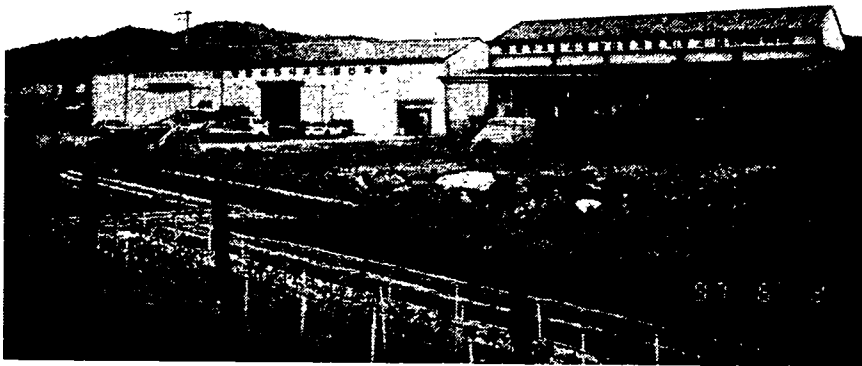
농산물 집하절차는 복숭아와 감은 적기에 수확하고 출하해야 하기 때문에 첫출하되는 6월중순부터 9월중순까지 작목반원들이 공동으로 작업조를 편성, 새벽부터 수확작업을 실시한다.

또 수확후 플라스틱 컨테이너 박스에 담아 경운기로 마을 중앙에 설치된 간이집하장으로 오전 8시까지 집하되며 선별은 당일 작업 순서에 따라 집하장내 설치된 중량선별기를 이용, 공동으로 선별 - 포장작업을 하고 있다.

『철저한 선별과 규격상품화로 청도군내 68개 작목반중에서 농산물 검사소의 출하조직 평가에서 최우수조직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백도가 출하되는 시기에는 부산엄궁동 농협공판장에서 화리 복숭아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를 별도 장소를 제공하여 경매할 정도로 인기가 있어 지난해에는 타 지역 복숭아 보다 상자당 3천원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작목반장 박태식씨의 말이다.

박씨 말대로 이런 신뢰는 집하되는 농산물을 개수별로 7등급으로 선별하여 규격박스에 포장하여 상차전에 자율검사원과 작목반장이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이다.

함창이안 사과영농조합 농산물간이집하장



대표자	김 학 보 (☎: 0582 - 541 - 6894)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대조리 717				
지원년도	'95	조직원수	130명	이용농가수	145명
취급품목	사과			취급량	2,696 톤
시설규모	부지:1,206평, 건물:150평, 저온저장고,지게차,수송차량				
투자액	126 백만원 (국고: 49 지방비: 49 자담: 28)				

○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여 대만에 수출

- 농산물검사소의 품질인증품 획득

함창·이안 사과영농조합은 사과의 고장 경북 상주시 함창읍 과수농가 친목회인 「청목회」와 이안면 「과수회」를 통합, 지난 93년 9월에 영농조합으로 전환하여 현재는 조합원수만 1백30농가에 출자금 1억3백만원의 규모로 성장했다.

또 사과를 전문적으로 생산 공동출하하기 위해 함창, 이안지역 과수농가 90%이상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85년 12월부터 제주시농협공판장에 출하되기 시작한 사과는 품질을 인정받아 제주도 시장에 80%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조합에서 출하되는 사과는 품질이 우수하여 95년 5월에 농산물검사소로부터 품질인증품으로 지정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신미통상을 통해 대만에 1백75톤을 수출하기도 한 선진 영농조합이다.

조합은 매년초 열리는 총회에서 결산과 임원선출 등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매월 한번씩 열어 조합운영에 따른 주요 사안들을 협의 결정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의 생산기술 향상을 위해 연 3~4회씩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착색방지사용법, 수정별 방사요령 등과 같은 실질적이고도 최선의 기술을 조합원 들에게 보급키 위한 것이다.

이 곳 영농조합에서 실시되는 농산물 집하방식은 복잡하지 않다. 농가에서 수확한 사과는 농가보유 창고에 보관 후 농가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시기에 조합의 순회 차량을 이용 오후 4시까지 간이 집하장에 집하한다. 또 제주농협공판장은 5시까지 상차, 부산항에서 페리호로 해상운송되며 대전농협공판장과 가락동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것은 오후 8시에 출발한다.

이런 모든 과정이 단순화된 것은 간이집하장 덕분이다.

지난 95년 1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천2백여평 부지에 150평규모로 건설된 간이집하장은 저온저장고, 지게차, 수송차량 등 필요시설 및 장비도 모두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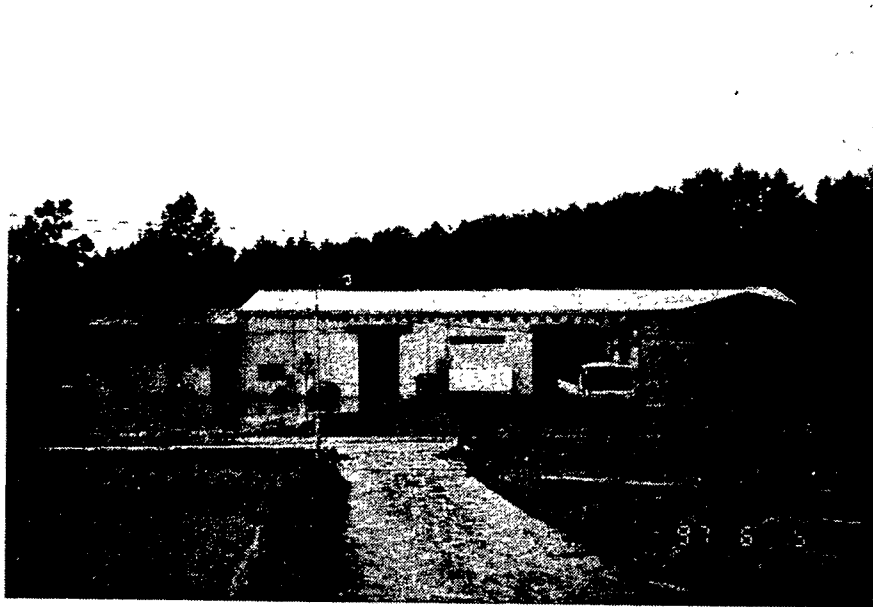
이 집하장이 완공됨에 따라 조합원들은 이전까지 인근 농협 창고와 도로변에서 상차작업을 하기 때문에 성출하기 많은 물량이 나올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저온저장고까지 갖추고 있어 규격상품화뿐만 아니라 일시보관에의한 출하조절까지 가능해졌다.

『출하처 결정은 대부분 전화와 PC로 수집된 전국의 가격동향과 출하물량을 감안, 조합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농가에서 도매시장을 지정하여 출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출하물량은 조합원 90% 이상이 갖고 있는 중량선별기로 개수를 기준, 5 ~ 6등급으로 선별한 15Kg규격상자에 담아 출하하고 있다.

영농조합 김학보 대표는 『지난해 공동출하와 조직운영 활성화로 제주시 농협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대전농협 우수농산물 출하조합상, 경북지사 표창 등 많은 상을 타기도 했다』 고 한다.

거창 원예영농조합 농산물간이집하장



대표자	김판조 (☎: 0598 - 43 - 5834)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읍 양평리 574-1				
지원년도	'95	조직원수	63명	이용농가수	413명
취급품목	딸기,복수박			취급량	1,027 톤
설치규모	부지:809평, 건물:200평, 저온창고, 콘베어 등				
투자비	153 백만원 (국고: 60 지방비: 60 자담: 33)				

○ 고품질의 여봉딸기를 생산하여 일본에 수출

- 일본 오다청과도매시장 등을 방문 수출상담 실시
- 딸기, 복수박 품질인증 획득

거창 원예영농조합은 사업초기에 집하장소가 없어 비가림 집하 시설 20평에서 작업을 하다 우천시에는 다리 밑에서 상차작업을 할 정도로 간이집하장 시설이 꼭 필요했었다.

정부의 도움으로 간이집하장을 설치한후 예는 연중 안정적인 출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공동출하가 활성화되었고 비수기에는 비닐, 포장박스 등 농자재보관 장소와 추곡수매시 수매장소로도 활용하여 간이집하장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거창 시설원예조합은 거창읍 양평리 부락의 딸기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85년에 조직된 거창농협 딸기작목반을 모태로하여 95년 11월에 영농조합으로 법인화 됐다. 현재는 조합 출자금 1억1천3백만원, 조합원수63농가로 조합규모가 날이 갈수록 발전해 가고 있는 건실한 조합이다.

『 조합에서 생산되는 여봉딸기는 지역특성상 일교차가 심한 고랭지에서 재배되어 과육이 단단하고 향기와 당도(8도 ~ 12도)가 높고 재배기술이 뛰어나 97년 2월에는 일본의 여봉딸기 주산지인 도지끼현 딸기재배 40농가에서 재배기술을 습득키 위해 방문할 정도로 지명도가 높습니다 』라고 조합장 김판조씨의 딸기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특히 조합에서 출하되는 딸기와 후작으로 재배하는 복수박은 품질이 우수하여 농산물검사소로부터 품질인증품으로 지정 받았다. 이로인해 96년 1월 ~ 3월에 거창군으로 부터 딸기 수출촉진을 위해 군비를 지원받아 건설한 저온저장고 50평을 활용하여 일본에 생딸기 64톤을 항공편으로 수출,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출은 거창딸기의 우수성에도 원인이 있으나 뭐니뭐니 해도 간이집하장 시설을 한 덕분이다.

조합원들은 매년 딸기하우스 비닐교체 작업시에는 13명씩 조를 편성하여 3일간 공동작업을 실시하며 퇴비 살포작업과 파종시에는 조합원 가족끼리 품앗이로 자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반면 수확기에는 인근지역에서 부녀자를 고용하여 인력을 충당하고 있다. 이는 수확시기를 놓치면 상품가치가 없어져 수확을 일시에 해야하기 때문이다.

조합은 특히 고품질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재배기술 향상에 노력하여 농촌지도소와 일본의 독농가 등 영농전문가를 초청하여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작년 12월에는 조합원 8명이 일본의 도찌요도메(딸기 신품종) 재배농가와 동경 오다 청과 도매시장, 후쿠오카 대동청과를 방문하여 딸기 수출상담을 실시한 바도 있다.

연중 2기작으로 생산되는 딸기와 복수박은 오전에 하우스에서 농가별로 선별하여 규격상자에 담아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오후 5시까지 조합의 농산물 간이집하장으로 집하 된다.

이렇게 집하된 딸기는 도매시장 출하시 자체차량(5톤)을 이용하여 출하하며 차량기사는 조합원이 순번제로 맡는다. 복수박은 대부분 인근지역의 화물차량(11톤)을 임차하여 오후 6시에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출하된다.

이때 야간에는 2명씩 교대로 숙직근무를 하여 간이집하장 시설물 관리와 출하시 사고처리, 소비자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출하되는 딸기는 농가별로 수확후 특, 상, 중, 하 4등급으로 선별하여 1.7kg 상자에 포장·집하되며 복수박은 개수를 기준 3 ~ 6개로 5kg 규격상자에 포장한다. 특히 복수박은 상차전에 자율검사원인 조합장과 조장에 의해 철저한 품질 검사가 이뤄진 다음에야 출하하게 된다.

이와함께 농가에서 선별한 등의 딸기는 가공용으로 전량 대구의 협성농산에 판매되며, 도매시장 출하시 출하처 결정은 연간 출하약정을 체결한 가락동도매시장 한국청과로 대부분 출하되고 있으나 농가별 소량단위 출하품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판매대상 처를 결정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조합은 그동안 간이집하장 설치의 꿈을 실현시켜 고품질의 딸기와 수박을 지키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밀양농협 농산물간이집하장



대표자	이 기 영 (☎: 0527 - 355 - 1197)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447 -11				
지원년도	'95	조직원	2,500명	이용농가수	380명
취급품목	고추, 깻잎			취급량	6,500 톤
시설규모	부지: 740평, 건물:150평				
투자비	218 백만원 (국고: 49 지방비: 49 자담: 120)				

○산지경매와 공동출하 300억 돌파

- 공동출하 활성화를 위해 출하장려금 전액 환원
- 가격등락이 심한 껏잎 산지경매시 최저가격 보장
- 매매참가인의 담합방지를 위해 불매제도 실시

2천5백여명의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간이집하장에 출하해 그 자리에서 산지 경매·분산까지 수행하는 모범적인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있다. 바로 경남 밀양시 상남면에 소재한 1백50여평 규모의 밀양농협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그 곳이다.

밀양농협 농산물 간이집하장(대표 이기영)은 지난 94년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총2억2천만원을 투자, 건설돼 그해 7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중전에는 80년 10월부터 삼문동 1백평과 용평동 60평의 농협 집하장에서 산지경매가 실시됐으나 취급물량 급증으로 장소가 협소해지고 주변이 택지로 개발되는 등 경매에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상남면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들어서면서 산지경매장으로 적극 활용, 경매가 활성화 된 것이다.

이곳 밀양농협 간이집하장을 이용하는 농가는 밀양농협 관내 밀양읍, 상남면의 25개 작목반 3백80농가다. 이들이 수확 선별 포장한 풋고추와 껏잎은 오전 5시부터 농협차량과 지정 수송사업자 차량 8대로 12시까지 집하장에 수집, 하차된다.

매일 4명의 농협직원이 상주해 출하물량 및 출하자 등을 확인 접수하고 오전 11시부터 산지 경매가 실시된다.

생산농가에서 계통출하를 희망하는 물량과 당일 경매에 불매 처리된 물량은 산지경매가 종료되는 오후3시이후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출하된다. 특히 불매된 물량과 가격 등락 폭이 큰 껏잎은 최소가격 보장제를 적용해 당일 경락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전량 도매시장으로 출하하고 있다.

당일 경매결과 판매대금은 수수료4%(농가환원수수료 0.5%차감)를 공제한 후 다음날 곧바로 출하자 통장에 입금되며 매매참가인에 대한 경락대금 결제는 1개월이내에 농협에 입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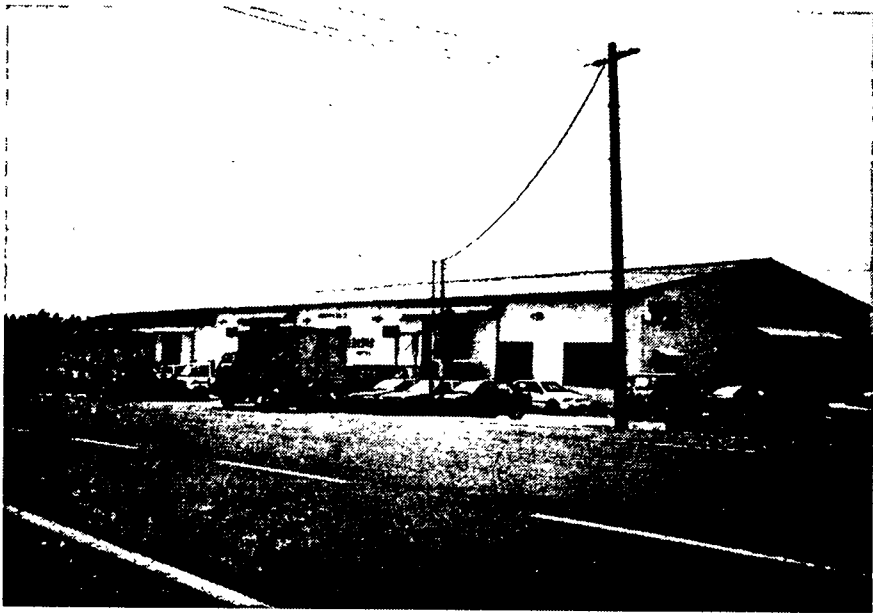
밀양농협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활용해 지난해 2천7백50톤, 70억원 규모의 풋고추와 껏잎을 산지경매로 대구, 부산, 울산, 포항 등지에서 매참인으로 등록한 도·소매상인 30명을 통해 인근 대도시 시장에 판매했다. 또 삼문동과 용평동의 농협자체 집하장과 정부지원 간이집하장을 거쳐 서울 가락동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물량도 8천7백50톤, 2백30억원대에 이른다.

밀양농협은 간이집하장을 통한 공동출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매시장 출하장려금을 연간 1억5천만원 전액을 농가에 환원하며 분기별 출하금액을 점수로 환산, 생산농가에 이용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밀양농협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산지 경매를 기반으로 생산자 스스로의 가격지지 능력도 갖춰 나가고 있다.

경매가격 기준을 가락동도매시장의 전날 경락가격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출하자의 요구로 불매된 물량은 도매시장에 재출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이는 매매참가인의 가격 담합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 유통구조를 다져나가는 효과는 물론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귀포 감귤영농조합 농산물간이집하장



대표자	오 경 숙 (☎: 064 - 39 - 7712~3)				
소재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231-1				
지원년도	'96	조직원수	235명	이용농가수	235명
취급품목	감귤			취급량	4,325 톤
시설규모	부지:7,500평,건물:200평,예냉실,선별기,포장기,지게차 등				
투자비	153 백만원 (국고: 60 지방비: 60 자담: 33)				

○ **고유브랜드 「칠십리감굴」 품질 차별화전략
으로 수입개방 문제없어**

- 우수출하자 우대제도 도입으로 품질 고급화 유도
- CATV, 통신판매 등 직거래 활성화
- 일본 오사카백화점계약으로 해외에서도 인정

제주도 명물 「감굴」의 상품화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특화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서귀포 감굴영농조합(대표 오경숙).

서귀포 감굴영농조합은 지난해 정부지원금 1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7천5백평 부지위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립했다. 2백평 규모의 서귀포 감굴영농조합 간이집하장은 예냉실, 선별기, 포장기, 지게차 등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간 4천3백톤이 넘는 감굴이 이 곳을 통해 집하·선별·포장에서 공동출하까지 풀가동된다. 바로 제주도 감굴의 산실인 것이다.

서귀포 감굴영농조합은 농약과 화학비료로 오염된 토양을 회복시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91년 결성된 민간 연구단체인 「자연농업연구회」가 그 모태다. 이어 95년 12월에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우리나라 감굴을 지키자는 취지하에 서귀포시 9개 감굴 작목반 2백35농가가 모여 현재의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했다.

정부로부터 최우수조직으로 분류받은 조합은 지난해 시설감굴과 조생감굴이 정부 품질인증품으로 인정 받았다. 이에 힘입어 품질의 차별화를 선언하고, 서귀포시에서 보증하는 고유 브랜드 「칠십리 감굴」을 개발, 의장·상표등록도 마쳤다.

조합은 매년 2회의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 및 결산 임원선출 등을 결정하고 월1회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고정자산 투자, 홍보 및 판매처 개발, 시기별 출하량 조절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을 통해 운영 활성화를 기한다.

또 매분기 1회씩 「자연농업연구회」 주관하에 제주도 감귤재배 농가 1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외국 영농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무농약 재배와 화학비료 안쓰기 등 토양살리기 운동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조합은 서귀포해변 70리를 의미하는 「칠십리감귤」의 품질차별화를 위해 출하품 가격보전제를 시행하고 있다. 출하품의 당도가 12Brix이상이고 산도가 0.9%이하일 경우는 포장상자 40% 보조를, 당도 13Brix이상 산도 0.9%이하는 포장상자 전액 보조와 선과료 무료 및 가격보전을 해주는 우수출하자 우대제도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조합은 감귤의 소비지 홍보차원에서 서울 등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준조합원을 모집해 감귤 택배서비스와 감귤 농장 견학알선, 관광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조합의 농산물 집하는 오후에 수확한 감귤을 플라스틱 콘테이너박스에 담아 마을 입구에 적재하고 이를 조합에서 수집해 간이집하장까지 운송한다.

간이집하장에서는 1~2일간 예조과정을 거친 후 농가 입회하에 전량 형상선별기로 선별하고 매일 농촌지도소에서 당산검사기로 당도와 산도를 측정한다. 선별된 하우스 감귤 및 노지감귤은 당일 제주특송을 통해 항공기와 선박편으로 서울가락동도매시장과 영등포시장 등으로 출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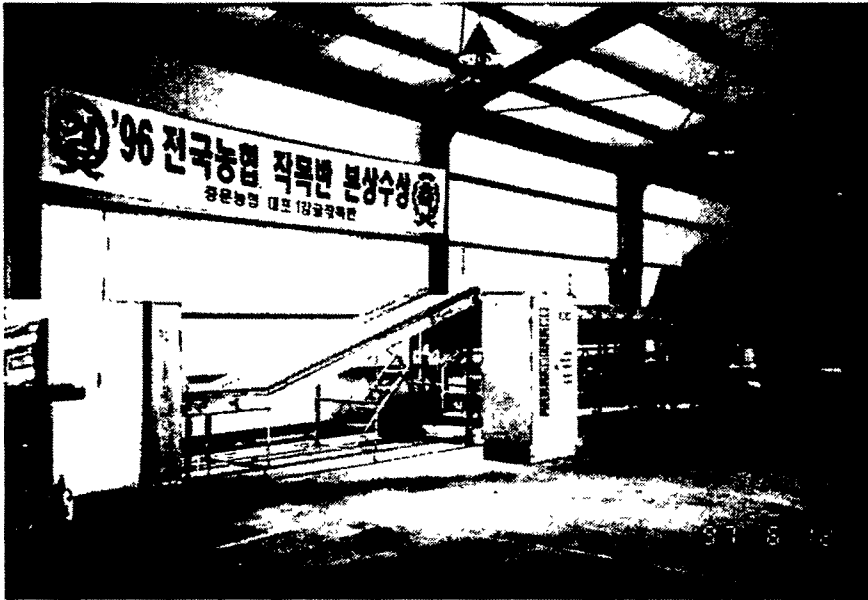
출하되는 감귤은 형상선별기를 이용해 개수와 당도를 기준으로 9등급(하우스감귤:28~89개, 5Kg. 노지감귤:1백25~2백50개, 15Kg)까지 분류된다. 이렇게 선별된 감귤은 당도에 따라 2종의 박스에 포장되며 농산물검사소로부터 자율검사원으로 위촉된 4명의 직원이 최종적으로 검사한 후 출하된다.

이러한 엄격한 품질관리로 규격 상품화된 칠십리 감귤은 최근 상품성을 높이 인정받아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소매유통업체 납품, CATV와 우체국 통신판매 등 직거래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다.

또한 올해 7~8월에는 제주교역을 통해 일본 오사카백화점에 수출도 추진하는 등 품질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칠십리 감귤의 수출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조합은 간이집하장이 설치되기 전에는 조합원이 생산한 감귤을 자연농업작목회, 농협, 하효작목반 등의 선과장 3개소에 분산, 선별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 규격 상품화에 애로를 겪었었다. 그러나 현재의 간이집하장 완공으로 감귤전량을 동일장소에서 공동선별이 가능해짐으로써 「칠십리감귤」의 브랜드화와 품질 차별화를 실현케되어 조합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대포1 감귤작목반 농산물간이집하장



대표자	강 문 조 (☎: 064 - 38 - 3442)				
소재지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 830-1				
지원년도	'94	조직원수	38명	이용농가수	48명
취급품목	감귤			취급량	1,028 톤
시설규모	부지: 200평, 건물:100평, 선과기, 결속기				
투자비	90백만원 (국고: 36 지방비: 36 자담: 18)				

○ 96년 전국 농협작목반 본상 수상

- 조직 결속력과 규격상품화 출하 우수성 인정
- 선과기 작동시 2명씩 순번제로 실시
- 농자재를 전량 농협계통구매 염가 공급

「 집하장 설치이전에는 작목반원 소유 공터 60평에 임시집하장을 만들어 고작 수동선별기와 저울을 이용하여 선별-포장작업을 했기 때문에 규격상품화가 미흡했으나 정부로 부터 간이집하장 설치사업과 과수유통지원사업을 받아 설치한 선과기, 결속기, 제함기를 활용하여 공동선별과 공동출하를하므로서 인력과 시간이 절약되고 소득도 높아 졌습니다 」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에 소재한 대포1 감귤작목반 강문조 반장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설치 이후 달라진 작목반을 이같이 서슴없이 밝혔다.

서귀포시 대포마을에 위치한 대포1 감귤작목반은 토질 및 기후 조건이 제주도에서도 감귤재배에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한 감귤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는 선과시설을 갖춘 도내 현지수집상에게 대부분 포전거래를 하여 품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 할 수 밖에 없어 재배농민들은 늘 손해를보았다.

이에, 이동수씨를 비롯한 38농가는 80년1월에 감귤의 홍보와 시장개척을 위해 작목반을 결성하여 중문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기 시작하였다.

작목반의 원년부터 초대작목반장(이동수)이 개척한 광주원협 공판장 계통출하를 다년간 지속하고 있어 출하시 타지역 작목반 보다 좋은 가격을 받고 있으며, 조직의 결속력과 규격상품화 노력 등을 인정받아 96년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농협작목반 본상”을 받은 우수조직으로 명성을 드높였다.

현재 대포1 감귤작목반의 간이집하장 시설규모는 부지 2백평에 건물 1백평으로서 9천만원이 투자되었고, 부대시설로서 중형선과기, 결속기, 제함기 등을 갖추어 1일 4톤정도를 선별포장하고 있다.

이같은 작목반은 매년 3월에 소집하는 총회에서 결산, 임원 선출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매분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에서 선과기 수리에 관련된 사항과 공판장 경매사를 초청하여 가격 전망등 작목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한다.

특히 생산량 측정과 국내의 가격정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출하시기별 물량을 사전에 계획하고 간이집하장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

작목반은 이와함께 고품질의 감귤생산을 위해 97년 3월에는 작목반원 30명이 일본 큐슈지방의 감귤연구소의 첨단 선과장과 벳푸 공판장 등 선진유통시설을 견학했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농촌지도소와 농약회사의 영농교육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선과기 작동시는 반드시 작목반 총무와 반원 2명이 매일 순번을 정해 작업을 실시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박스와 비료 등 농자재는 전량 중문농협에서 계통구매하여 작목반원에게 염가로 공급하고 있다.

작목반의 농산물 집하는 농가별로 수확한 감귤을 플라스틱 컨테이너 박스에 담아 농가소유 경운기와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되며 선과작업은 작목반의 지정 순서에 따라 간이집하장에서 공동 선과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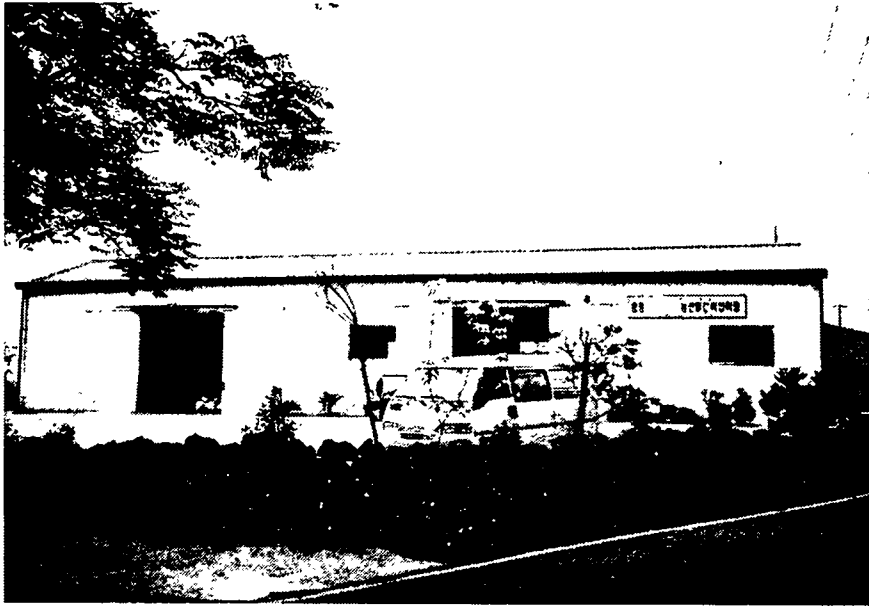
이렇게 선별-포장된 감귤은 당일 밤12시에 선박편으로 전남 광주원협공판장(95%출하)과 익산원협공판장(5%)으로 출하하고, 대금은 경매후 당일 작목반원들에게 송금된다.

농가별로 집하되는 노지감귤은 중형 자동선과기로 개수 기준 11등급으로 구분 선별하여 15kg 규격포장 상자에 포장되며, 도매 시장에서는 다시 6등급으로 구분 상장된다.

성수기에는 일일 평균 10농가에서 1천5백 ~ 3천상자씩 집하, 선별-포장작업을 한다.

대포 작목반의 감귤은 제주도에서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정평이 있어 지난 94년에는 농산물검사소로 부터 품질 인증품으로 지정,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같이 대포 감귤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작목반원들은 밑거름을 충실히 하면서 과일숙기 등 남다른 노력을 하고있다.

용흥 신농감귤작목반 농산물간이집하장



대표자	양성길 (☎: 064 - 99 - 6080)				
소재지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용흥리 1795				
지원년도	'95	조직원수	31명	이용농가수	61명
취급품목	감귤, 참다래			취급량	1,117 톤
시설규모	부자:315평, 건물:100평, 선별기, 제함기, 벤딩기 등				
투자비	165 백만원 (국고: 49 지방비: 49 자담: 67)				

○ 연구개발한 방충망 설치재배법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

- 당도가 높고 병해충이 없어서 높은 가격 수취
- '96년 농협중앙회 아이디어상 수상

아마도 우리 농가들은 자기가 애써 생산한 농산물을 헐값에 판매하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더구나 농가들이 정보가 어둡다는 이유만으로 수집상들이 가격을 속여 농산물 값을 싸게 쳐서 사가는 것을 알게 되면 분통이 터질 것이다.

지난 86년까지만 해도 제주도 애월읍 용흥리 부락의 감귤농가들은 애써 지은 감귤을 이같이 상인에게 터무니 없는 싼값에 농락 당했다.

이에따라 이 부락 감귤재배 6농가들은 상인들의 횡포를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 없이 86년 7월에 신농감귤작목반을 결성,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렇게 작목반이 결성되면서 감귤은 제값을 받게 됐고 상인들의 횡포도 사라지게 됐다. 감귤 값을 제대로 받게 되자 부락 농가들은 앞다투어 작목반에 가입하여 현재 31농가로 늘어났다.

특히 95년 8월에는 정부지원 9천8백만원, 자부담 6천7백만원 등 총 1억6천5백만원의 자금을 투입, 부지 3백15평에 건물 1백평의 간이집하장을 완공하여 감귤의 조직적인 선별·포장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더우기 선과시설이 없는 인근의 중음리, 신엄리의 작목반 30농가에서 생산된 감귤까지도 선과료만 부담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시설 이용율을 극대화 하고 있다.

용흥 신농감귤 작목반은 감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95년 10월 작목반원 김은실씨가 연구 개발한 방충망설치 재배법 성공으로 당도가 높고 병해충이 없는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같은 기술은 제주 전지역에 확산, 보급되어 96년 농협중앙회에서 아이디어상을 수상했고 97년부터 애월농협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전조합원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신농감귤작목반의 간이집하장은 농가에서 수확한 감귤을 1일간 후숙처리후 선과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 농가에서 원하는 선과시기와 물량을 작목반장이 파악 순번을 정한다. 이 때 작업은 오전 8시부터 시작하여 성출하기에는 밤 12시까지 연장작업으로 일일평균 1천5백~2천5백상자를 선별·포장해 선박을 이용, 육지로 운송하고 있다.

감귤출하는 노지감귤이 출하되는 11월부터 익년 4월말까지 원주농협공판장에 80%, 가락동도매시장내 중앙청과에 20%를 출하하고 있다.

농가별로 집하되는 노지감귤은 중형 형상선과기에의해 11등급으로 선별하여 개수별로 15Kg 규격박스에 포장 출하되고 선과 작업시에는 작목반원이 매일 4인1조로 조를 편성, 공동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용흥 신농감귤작목반은 간이집하장 설치이전에는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비가림시설도 없이 노지에서 손으로 선별포장하는 등 고생이 많았다. 그 후 50평규모의 농협창고를 임대 반자동선별기를 설치하였으나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장소 또한 협소하여 애로가 많았다..

그러던 중 정부의 간이집하장 지원사업과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100평 규모의 집하장과 최신기계를 설치하는 소망을 이루어 현재 연간 1천톤이 넘는 물량을 선과처리하고 있다. 또한 비수기에는 농자재보관, 작목반 회의장소와 감귤재배용 방충망 연결작업장으로 활용, 연중 유익한 시설로 쓰고 있다.

이같은 작목반은 매년 5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결산, 임원 선출, 선과수수료 결정 등 중요 안건을 처리하고, 매년 3~4회 소집되는 임시총회에서는 출하처별 물량조정, 시설개보수 등 간이집하장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또 5월초순에 실시하는 비가림 방충망 설치작업은 작목반원 공동으로 수행하며 방충망, 포장박스, 비료와 농약은 애월농협을 통해 공동구매하고 있다.

이밖에 97년 4월에는 작목반원의 단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한 강원도 선진농업 현장을 3박4일 시찰하고 정기적으로 농협,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에 반원 전원이 참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고 있는 모범 작목반이다.

Ⅲ. 부 록

1. 농산물 포장센터 현황

2.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현황

3. 농산물 간이집하장 현황(종합)

여 백

1. 농산물 포장센터 현황

도별	지원 년도	사 업 조 직		조직 원수	조직 일자	주 소
		조 직 명	대표자			
부산	'95	장안농협	김영대	1,170	'72.10	기장군 장안읍
경기	'96	백송애그리텍영농조합	김동석	8	'94. 4	고양시 덕이동
"	'96	농사단원천 영농조합	김결규	7	'95. 2	안성군 원곡면
"	'96	신아영농조합	황일상	7	'95.10	이천군 대월면
강원	'95	재산영농조합	김영학	14	'92.10	평창군 용평면
"	'95	도암농협	박병대	760	'73. 3	평창군 도암면
"	'95	진부농협	이석호	1,520	'69	평창군 진부면
"	'96	감자바우영농조합	유희관	5	'95. 2	춘천시 남면
"	'96	태백산영농조합	방병국	9	'94. 3	태백시 통동
"	'96	예미농협	현수근	535	'64. 4	정선군 신동읍
"	'97	강릉농협	최상필	2,816	'72.10	강릉시 옥천동
"	'97	그린바위영농조합	심정택	15	'95.11	정선군 동면
"	'97	원주농협	신현각	1,794	'75.12	원주시 행구동
"	'97	내면농협	이성호	937	'73. 9	홍천군 내 면
"	'97	화천농협	최주환	2,045	'72. 6	화천군 화천읍
"	'97	대화농협	전영록	1,300	'69	평창군 대화면
충북	'95	충북사과원협	박형훈	3,850	'46	보은군 보은읍
"	'97	단양과수영농조합	이성종	106	'95. 9	단양군 대강면
충남	'95	부여밤영농조합	이건훈	201	'94. 6	부여군 구룡면
"	'95	도고농협	전원상	1,436	'71. 7	아산군 도고면

부지 (평)	건 물 (평)				취 급 품 목	전 화
	계	선별포장	저온창고	기타		
1,144	307	200	100	7	배, 메론	051-727-1712
350	137	37	100	-	오이, 토마토	0344-914-3047
1,442	345	150	150	45	복숭아, 배	0333- 53-4457
840	450	290	130	30	토마토, 오이	0336- 32-1503
1,000	521	316	205	-	감자	0374- 34-0160
2,164	636	352	250	34	감자	0374- 35-5966
-	506	282	180	44	감자, 토마토	0374- 35-8246
1,500	280	100	150	30	버섯, 과채류	0361-262-5421
1,840	100	50	50	-	오이, 토마토	0395- 54-4115
1,000	240	100	100	40	고추, 옥수수	0373- 78-0080
-	-	-	-	-	감자	0391- 43-3858
-	-	-	-	-	토마토, 배추	0398- 63-1751
-	-	-	-	-	풋고추, 오이	0371- 41-5534
-	-	-	-	-	감자, 풋고추	0366- 32-6008
-	-	-	-	-	감자, 오이	0363-442-2490
-	-	-	-	-	감자, 고추	0374- 33-2722
500	100	(80)	100	-	사과	0433- 42-2132
-	-	-	-	-	사과	0444-22-9893
2,327	1,024	400	234	390	밤	0463- 33-9933
1,549	335	100	200	35	쪽파, 대파	0418- 41-4368

도별	지원 년도	사 업 조 직		조직 원수	조직 일자	주 소
		조 직 명	대표자			
충남	'96	논산사과연합과수영농조합	박창엽	135	'94. 9	논산시 부적면
“	'96	보령후계자영농조합	신용준	5	'94. 9	보령시 주교면
“	'96	통천포과수영농조합	이목주	11	'95. 2	공주시 사곡면
“	'96	안양골영농조합	유인혁	16	'95. 1	천안시 성환읍
“	'96	도고농협	전원상	1,436	'71. 7	아산시 도고면
“	'96	세도농협	이규천	1,500	'64. 6	부여군 세도면
“	'97	서천단감영농조합	홍희선	-	-	서천군 마산면
“	'97	부여밤영농조합	이건훈	201	'94. 6	부여군 구룡면
“	'97	유림영농조합	현준호	152	'95.12	부여군 부여읍
“	'97	양촌농협	김천수	1,845	'69	논산시 양촌면
“	'97	천안배원협	심광택	866	'59.10	천안시 성환읍
“	'97	금산유기영농조합	강택중	150	'95. 1	금산군 진산면
“	'97	백제농산영농조합	김중원	206	'96. 1	보령군 웅천읍
“	'97	한국농산영농조합	박명수	41	'95.11	아산시 실옥동
전북	'95	새만금유통영농조합	백남구	61	'94.10	부안군 상서면
“	'95	익산농어촌영농조합	김배현	15	'94. 9	익산군 함라면
“	'95	남원임협	윤재창	4,229	'93.12	남원시 용정동
“	'95	전주원협	복영모	1,280	'63. 4	전주시 덕진구
“	'96	완주임협	류복규	1,434	'62. 3	완주군 고산면

부지 (평)	건 물 (평)				취 급 품 목	전 화
	계	선별포장	저온창고	기타		
1,257	200	100	100	-	사과, 배	0461- 33-7817
533	220	100	100	20	느타리, 표고	0452- 32-7880
1,229	270	150	100	20	사과, 배	0416- 54-0625
1,600	250	150	100	-	배	0417-582-4991
1,549	(335)	(100)	(200)	(35)	쪽파, 대파	0418- 41-4368
-	(350)	(350)	-	-	미니토마토	0463- 33-0280
-	-	-	-	-	단감	0459-953-8230
2,327	1,024	(400)	(234)	(390)	밤	0463- 33-9933
-	-	-	-	-	버섯, 마늘	0463-835-2715
-	-	-	-	-	딸기, 호박	0461-741-2006
-	-	-	-	-	배	0417-581-2581
-	-	-	-	-	사과, 상추	0412- 52-7127
-	-	-	-	-	미니토마토	0452- 33-3321
-	-	-	-	-	마늘	0418-548-6414
564	260	200	50	10	마늘, 양파	0683- 83-3468
906	232	52	150	30	양파, 마늘	0653-861-0295
1,000	260	200	60	-	잣, 밤	0671- 31-2011
909	309	172	100	37	사과, 배	0652-251-5787
676	260	110	110	40	밤, 대추, 감	0652-261-6816

도별	지원 년도	사 업 조 직		조직 원수	조직 일자	주 소
		조 직 명	대표자			
전북	'96	정읍원협	최진석	796	'65. 1	정읍시 수성동
전남	'95	무안양념채소류유통사업영농조합	배종렬	557	'93.12	무안군 현경면
“	'95	곡성군소득작목 영농조합	이왕노	980	'92. 9	곡성군 석곡면
“	'95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영농조합	정운천	700	'95. 9	해남군 화산면
“	'96	해남 동백영농조합	박득수	38	'94. 9	해남군 화산면
“	'96	진도 농어민영농조합	정기남	9	'95.12	진도군 군내면
“	'96	동방농산물영농조합	이영희	24	'95. 6	나주시 남평읍
“	'96	산강산업농축산영농조합	김성철	39	'95. 1	나주시 금천면
“	'96	전남 생약영농조합	김행중	1,250	'67. 4	화순군 능주면
“	'97	홍릉영농조합	조봉춘	1,010	'95. 1	함평군 엄다면
“	'97	손불농협	이기노	1,845	'72. 4	함평군 손불면
“	'97	도포농협	박용선	1,184	'70. 6	영암군 도포면
“	'97	광양 곡수영농조합	정원보	295	'94. 5	광양시 옥곡면
경북	'95	풍성영농조합	한광수	5	'94. 4	문경시 마성면
“	'95	청우영농조합	구자백	6	'94. 4	영천시 청룡면
“	'95	영주농협	백석태	1,775	'72.12	영주시 휴천동
“	'95	안계농협	이사용	1,320	'69. 8	의성군 안계면
“	'96	영덕복숭아영농조합	박쾌양	300	'94. 3	영덕군 지품면
“	'96	죽장 사과영농조합	허동식	88	'95. 2	포항시 죽장면
“	'96	김천 유통영농조합	이기양	6	'94. 9	김천시 대항면

부지 (평)	건 물 (평)				취 급 품 목	전 화
	계	산별포장	저온창고	기타		
366	150	150	-	-	사과, 배	0681-535-4234
4,096	2,280	946	900	434	마늘, 양파	0636-453-1982
1,062	329	143	120	66	사과, 메론, 단감	0688- 63-0588
5,000	150	150	-	-	참다래, 감자	0634- 33-5577
974	210	-	200	10	고구마, 감자	0634- 35-4655
2,078	410	200	200	10	유자차, 대파	0632- 42-4710
1,428	250	140	100	10	배, 감, 고추	0613- 31-8893
653	110	30	80	-	배, 감, 포도	0613- 31-6844
1,500	140	20	100	20	작약외 10종	062-224-8484
-	-	-	-	-	양파, 마늘	0615- 22-7544
-	-	-	-	-	양파, 마늘	0615- 23-9914
-	-	-	-	-	수박, 토마토	0693- 73-5181
-	-	-	-	-	밤, 감	0667-772-4070
1,205	416	268	131	17	사과, 배	0581- 71-2443
2,280	615	400	200	15	사과, 양파	0563- 36-1414
1,387	720	270	300	150	사과	0572-635-2851
1,600	430	200	100	130	사과	0576-861-1908
600	200	200	60	70	복숭아, 사과	0564-734-2220
1,240	200	200	100	-	사과	0562- 43-3971
964	250	100	100	50	포도, 참외, 배	0547-434-7440

도별	지원 년도	사 업 조 직		조직 원수	조직 일자	주 소
		조 직 명	대표자			
경북	'96	홍익영농조합	김진우	125	'95. 3	경산시 진량면
“	'97	삼진 영농조합	이재천	6	'95.12	영천시 신령면
“	'97	청도시설원예영농조합	도인순	21	'95. 4	청도군 풍각면
“	'97	예천 영농조합	반용기	120	'95.10	예천군 상리면
“	'97	조광농산영농조합	전세원	8	'95. 6	의성군 옥산면
경남	'95	밀양단감영농조합	윤철호	680	'94. 1	밀양시 하남읍
“	'95	함양울림영농조합	정운상	192	'94. 7	함양군 함양읍
“	'96	창녕양과농업협동조합	박원술	324	'69.11	창녕군 창녕읍
“	'96	남면 영농조합	이창남	5	'95. 2	남해군 남면
“	'96	하동임협	이종수	2,100	'62. 7	하동군 하동읍
“	'96	용현명품토마토영농조합	신재균	54	'94. 4	사천시 용현면
“	'96	서생농협	이용진	500	'69.11	울산시 서생면
“	'97	청암농협	오남영	700	'73. 6	하동군 청암면
“	'97	함양양과영농조합	노원상	57	'96. 1	함양군 유림면
“	'97	영산농협	조대권	1,380	'72. 3	창녕군 영산면
제주	'95	구좌영농조합	고기주	16	'93. 8	북제주군 구좌읍
“	'97	성산농협	현인욱	2,661	'73. 3	남제주군 성산읍
“	'97	신선농산물영농조합	현대균	19	'94. 6	남제주군 성산읍
“	'97	한림농협	신인준	3,097	'69.10	북제주군 한림읍

부지 (평)	건 물 (평)				취 급 품 목	전 화
	계	산별포장	저은창고	기타		
1,640	380	200	100	80	채소, 과일	053-851-8500
-	-	-	-	-	양파, 마늘	0563- 32-0330
-	-	-	-	-	복숭아, 사과, 양파	0542- 72-2999
-	-	-	-	-	사과, 마늘	0584- 53-1135
-	-	-	-	-	고추, 마늘	0576- 33-3462
2,878	1,208	740	288	-	단감, 감자	0527-391-7077
775	380	140	180	60	밤, 양파, 감자	0597- 63-9594
1,300	700	300	250	150	양파, 단감	0559- 33-2724
600	255	130	100	25	마늘	0594- 62-8002
453	180	80	100	-	밤, 감, 버섯류	0595- 84-1959
786	200	200	-	-	토마토, 단감	0593- 34-0190
3,171	771	420	206	145	배	0522- 39-5303
-	-	-	-	-	밤, 감, 매실	0595- 84-0401
-	-	-	-	-	양파, 밤	0597- 63-1566
-	-	-	-	-	양파, 단감	0559- 36-0091
3,120	266	161	80	25	당근	064- 82-8201
-	-	-	-	-	감자, 당근	064- 82-3168
-	-	-	-	-	감자, 당근	064- 83-2288
-	-	-	-	-	감귤, 토마토	064- 96-2661

여 백

2.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현황

도별	조직명	이용 농가	준공	주소	전화
경기	대월농협	450	'93. 6	이천시 대월면	0336)33 -2135
	장호원농협	60	'94. 8	이천시 장호원읍	0336)642-2287
	안성원협	602	'94. 9	안성군 공도면	0333) 53-3611
강원	인제농협	308	'94. 6	인제군 인제읍	0365)462-2570
	대관령원협	460	'94. 7	평창군 도암면	0374) 35-0610
충북	충북원협	1,100	'93.10	충주시 이류면	0441)853-0266
충남	예산능금조합	2,551	'93. 7	예산군 오가면	0458) 33-3505
	광석농협	13	'93. 8	논산시 광석면	0461) 32-4952
전북	장계농협	530	'93.11	장수군 장계면	0656)351-0058
	망성농협	-	'93.10	익산시 망성면	0653)851-8730
	전주농협	40	'94.12	전주시	0652)253-8085
전남	두원농협	2,021	'93. 7	고흥군 두원면	0666) 33-4989
	나주원협	150	'93. 9	나주시	0613) 36-0660
	동진농협	-	'94. 6	진도군 동전면	0632)544-7847
경북	화북농협	40	'93.11	영천시 화북면	0653) 37-9201
	효령농협	1,410	'94.10	군위군 효령면	0578) 83-5088
	임동농협	150	'94.11	안동시 임동	0571) 53-3754
	기계농협	150	'94.11	포항시 기계면	0652) 43-2010
	청리농협	740	'94.11	상주시 청리면	0582) 31-0814
	풍기농협	685	'94. 8	영풍군 풍기면	0572)636-3209
	단감조합	1,528	'93.10	김해시	0525) 43-6100
경남	동면농협	1,020	'94.10	창원시 동면	0551) 99-1952
	사동농협	200	'94. 7	거제시 사동	0558) 32-7238
	가조농협	1,784	'94. 9	거창군 가조면	0598) 42-9885
	양산농협	30	'94. 4	양산시 북구	0523)389-2300

(단위: 평)

취급품목	부지	건물				
		집하장	선과장	저온창고	기타	계
당근	891	-	75	200	180	455
사과,배,복숭아	991	-	297	140	146	583
사과,배,포도 등	1,500	100	200	200	50	550
감자,배추,피망 등	2,191	-	100	100	211	411
감자,당근,배추 등	2,038	-	267	200	124	591
사과,배,복숭아	2,155	236	476	200	726	1,638
사과	3,200	-	478	400	93	971
사과,배	1,134	50	200	200	-	450
사과,채소류	1,325	90	110	242	31	503
사과,배,양파	1,960	140	60	200	287	687
복숭아,호박 등	1,000	-	400	100	-	500
유자,양다래 등	1,938	100	100	150	73	423
배	1,500	-	570	-	-	570
구기자,대파,배추등	1,830	-	500	200	-	700
사과,고추,양파 등	1,032	150	150	200	31	531
사과,포도,자두 등	2,359	150	150	200	60	560
사과,배,양파	1,599	-	150	200	182	532
사과,단감	906	(175)	150	200	184	534
사과,배,복숭아	2,553	200	150	156	32	538
사과	3,221	100	411	147	320	978
단감	907	150	477	400	-	1,027
단감,딸기,오이	998	100	140	282	93	615
유자,메론,오이	1,270	150	150	176	250	726
사과,딸기,복수박등	1,686	100	100	100	282	582
단감,마늘,양파	280	60	150	100	190	500

여 백

3. 농산물 간이집하장 현황(종합)

□ 지원년도별

단위 : 개소

지원 년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94	1	7	1	0	0	22	196	85	210	112	160	154	125	10	1,083
'95	6	4	1	5	5	42	143	64	164	83	100	139	86	29	871
합계	7	11	2	5	5	64	339	149	374	195	260	293	211	39	1,954

□ 설치 규모별

단위 : 개소

규모 (평)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50	3	3	0	2	2	34	241	112	110	93	72	132	75	2	881
60	0	1	0	1	3	8	14	10	190	18	25	42	16	7	335
80	0	2	0	0	0	5	18	5	14	16	21	28	13	9	131
100	2	4	0	1	0	6	47	15	35	47	93	51	60	9	370
150	0	1	1	1	0	3	9	4	18	12	25	24	21	8	127
200	2	0	1	0	0	8	10	3	7	9	24	16	26	4	110
합계	7	11	2	5	5	64	339	149	374	195	260	293	211	39	1,954